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가족 여러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Letter from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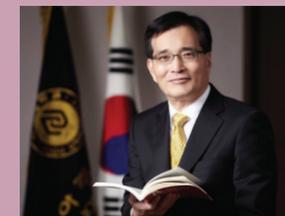
땀과 정성으로 그리는 아주의 이미지

아주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이 얹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녕하지 못하다고, 경제가 만만치 않다고, 취업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많다고 젊은 청년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안녕하지 못함을 안녕하게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총장인 저도 지고 있고, 아주가족 여러분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성인에게 요구하는 책무입니다.

새해 벽두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진행한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느끼는 우리 학교의 이미지' 연구 결과를 놓고 참석자들과 함께 그 결과가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러하리라 믿었던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일반인과 재학생, 입시준비생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투영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이 결과를 놓고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학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주비전 2023'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학교의 이미지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에 자기 몫의 산행이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올라야 할 높이가 있습니다. 지름길을 찾겠다고 헬기를 타고 산 정상에 내린다고 우리의 이미지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등 뒤에 얹혀 있는 짐을 불평하거나 탓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짐으로 인해 중심을 잡을 것이고, 그 짐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우리가 흘린 땀과 정성으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이 어우러질 때 아주의 이미지는 보다 생생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_ 안재환

안재환

Contents

Special Theme__ 아주대학교에 관한 속마음 심층 대분석

아주대 이미지 연구 결과 분석	05
김경일 교수 인터뷰	10
아주대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12

Story of Ajou__

Focus	아르헨티나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 유치	13
Research 1	고출력 광대역 T-레이 핵심 소재 개발	18
Research 2	산성도 정밀 분석 가능 분자센서 개발	20
Prof. Column	정경훈 교수	24
Issue	아주대의 실험, URP 2년 결산	26
Alumni Story	김성진 동문(육군 제39 사단장)	28
Photo Sketch	18 th Ajou International Day	30
Passion	꾸준한 도전으로 건져 올린 미래	34
Story	수학, 그 매혹적인 학문을 말하다	36
Vision	당당하게 현실에 맞서는 용기	44
Thank Donor	김정두 동문(프레시원강남 대표)	46
Admission Column	한호 입학처장	54

Ajou Uinv. News__

People	16
Event	22
Award&Selection	32
Medical Center	40
그외소식	42
Donation News	48

Ajou University Magazine _ 2014 New Year_Vol.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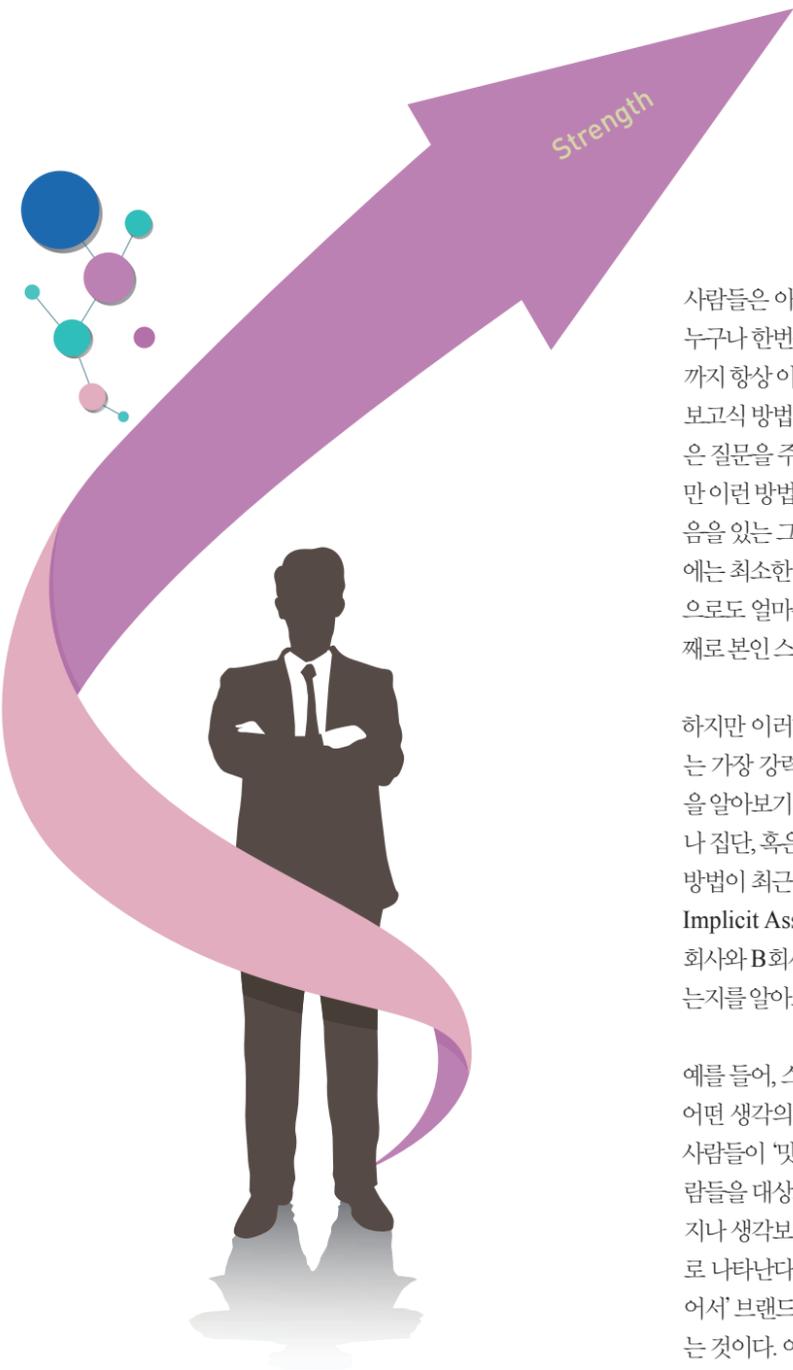
아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http://www.ajou.ac.kr/webzi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_ 2014년 1월 20일 / 발행인_ 안재환 / 편집인_ 노학래 / 발행처_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 • 219 • 2919 /
 기획 및 디자인_ 트레이드인터내셔널 / 사진_ 스튜디오 보브



아주대학교에 관한 속마음 심층 대분석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대학교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을까?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개개인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경일 교수팀과 함께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설문응답에 기초한 이미지 조사와 달리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무의식적 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사 결과 아주대는 '안정성과 활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주대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 아주대가 매력적인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할까. 아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심층 분석,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아주대학교, 안정성과 활력 있지만 진부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아주대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아주가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 했을 질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항상 이른바 '자기 보고식' 방법을 통해 조사되어 왔을 뿐이다. 자기 보고식 방법이란 무엇인가? 대표적인 예가 설문이나 인터뷰다. 알고 싶은 질문을 주고 그 대답을 기록하거나 응답을 숫자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그 특성상 한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다. 사람들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속마음을 숨기거나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로 본인 스스로 자기의 실제 속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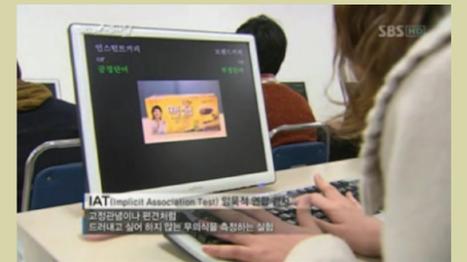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속마음은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할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 중에서도 특정 인물이나 집단, 혹은 대상에 대한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방법이 최근에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라는 것이다. 이 검사는 백인과 흑인, 혹은 A 회사와 B 회사와 같이 다른 두 대상 간에 어떠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 커피와 일반 인스턴트 커피 간에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까?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과연 그럴까? '맛'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IAT 검사를 해 보면 브랜드 커피는 '맛'에 관련된 이미지나 생각보다는 '멋'과 관련된 생각들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맛있어서' 브랜드 커피를 사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멋있어서'라는 것이다. 이렇듯 IAT는 사람들의 실제 속마음을 알아보는 데 꽤 유용한 도구로 국내외에서 사용되어 왔다.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란?

사람들은 사회적 바람직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거나, 때로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된 태도와 실제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IAT(암묵적 연합 검사: Implicit Associate Test)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동적 반응이나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을 평가하고자 고안된 방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무의식적 태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도구다 (Greenwald, McGhee, & Schwarz, 1998).¹⁾

IAT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아하는 대상은 유쾌한 단어와, 싫어하는 대상은 불쾌한 단어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긍정단어(예: 행복, 희망)와 관심 대상을 상징하는 자극(예: 특정 정당이나 대학명)을 연합하여 제시한 경우와 부정단어(예: 불행, 슬픔)와 특정 대상을 상징하는 자극을 연합하여 제시한 경우의 반응 속도를 비교하여 전자(긍정단어-타깃 대상)가 후자(부정단어-타깃 대상)보다 빠르게 나오는 정도(IAT점수)를 측정한다. 반응 시간이 빠를수록 두 개념 간의 연합(예: 아주대-성공 가능함)이 강하다고 판단하는데,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수록 기억 속에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²⁾



SBS 스페셜 - "커미언더시티" (2011.4.3)

1) <http://www.youtube.com/watch?v=n5Q5FQIXZag>
2) <https://implicit.harvard.edu/implicit/korea/>

그렇다면 아주대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IAT를 사용하여 아주대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속마음을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아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차이를 알아보았다.

어떻게 연구했나?

아주대학교에 관한 속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계층이 달라지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총 120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아주대학교 교직원(24명), 재학생(24명), 일반인(24명), 고등학생(24명), 고등학생의 학부모(24명) 등 총 5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 단어들은 기존 연구들과 대학 홍보자료, 슬로건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대학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20개의 단어들로 구성했다. 기존에 IAT에서 사용하던 긍정-부정의 정서 범주에 접근-회피 동기의 변인을 추가하여, 긍정-접근 단어(5개), 긍정-회피(5개), 부정-접근 단어(5개), 부정-회피 단어(5개)의 4범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미지 단어들은 역량 속성(전문적인, 창의적인)과 이미지 속성(열정적인, 활력 있는)을 골고루 포함하는 단어들로 선정하였다. 긍정과 부정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만 접근과 회피는 어떤 차원인가? 접근은 좋은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동기를 의미하는 반면 회피는 좋지 않은 것을 피하고 싶은 동기를 의미한다. 접근에도 긍정과 부정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정서가 각각 기쁨과 슬픔이다. 회피는? 각각 안도와 불안이다. 하지만 이런 정서 단어들을 직접 이 연구에 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슬픈 대학, 안도감 있는 대학은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이미지와 관련이 높은 단어들을 중 각 차원에 적절한 것을 5개씩 구성한 것이고 아래의 표가 그것이다.

이미지 단어 목록

긍정-접근	긍정-회피	부정-접근	부정-회피
성공 가능한	인정받는	불안정한	무기력한
자아발전의	전문성 있는	초조한	진부한
세계화된	전통 있는	불편한	진전 없는
열정적인	튼튼한	불투명한	구식의
활력 있는	안정적인	불쾌한	정체된

그런데 IAT 상황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각 이미지 단어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틈이 없다. 물론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실험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이미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느낌은 훨씬 간단하다. 하지만 독자들이 위의 단어들을 보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포괄적이며 심지어는 다의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위의 이미지 단어들은 아래와 같은 대표 정서들을 지닌다고 봐야한다.

- ✦ 안정적 → 꾸준함 (기복 없음)
- ✦ 활력 있는 → 역량 있는
- ✦ 진전 없는 → 변화 없음 (단조로움)
- ✦ 전문성 → 하는 일의 명확함
- ✦ 불편한 / 불쾌한 → 재미 없는
- ✦ 전통의 → 오래 되었음

앞서 말한 것처럼 IAT는 '백인-흑인' 혹은 '브랜드 커피-일반 커피'와 같이 두 대상 간에 존재하는 마음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와 비교할 다른 대학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모든 대학을 다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언론, 입시, 혹은 대학 유형 등에서 많이 비교되거나 언급되는 인하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5개 그룹이 각기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5개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아주대학교에 관해 가지는 속마음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속마음은 다음과 같았다.

아주대학교 vs. 인하대학교

전문성과 안정성은 아주의 강점 / 진전없고 불편함은 아주의 약점

아주와 인하의 이미지 비교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강점과 약점을 매우 극명하게 나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안정성과 전문성이란 두 이미지에 대해 사람들은 아주대학교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진전 없음과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들도 아주대학교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앞서 개별 이미지에 대한 대표 정서에 관해 말한 바와 같이) 아주대학교는 인하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명확히 제 할 일을 하고(전문성), 기복 없이 꾸준(안정성) 하지만 재미(불편)와 발전(진전)적인 느낌은 상대적으로 인하대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vs. 서강대학교

안정성과 활력은 아주의 강점 / 진부함과 불투명함은 아주의 약점

흥미롭게도 아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비교 결과는 인하대학교와의 비교 결과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같은 양상은 참가자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아주-인하'와 '아주-서강'의 구도로 대학이 비교되었을 경우에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이미지 비교에서 서로를 가장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이미지는 안정성과 활력이었다. 이 중 안정성은 아주대학교-인하대학교 간의 비교에서도 아주대학교와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목할 만한 이미지로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부함과 불투명함은 서강대학교에 비해 아주대학교가 강하게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로 이러한 요인을 개선하는 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참고로 인하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인하대학교는 아주대학교와 같이 공학계열의 비중이 크고 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기에, 서강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하나 규모가 비슷한 대학이기에 선정했다. 두 대학 모두 중앙일보 대학평가 10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서 이들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을 것이다.

각기 다른 그룹들 간에는 어떤 속마음의 차이가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참가한 5개 그룹의 '아주-인하'와 '아주-서강' 간의 이미지 반응에서 두드러진 이미지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 대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반응한 5위 이내의 이미지 중 중복도가 높은 이미지는 제외하고 두드러진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아주대학교-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서강대학교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교직원	안정적인 든든한	구식의 불투명한	열정적인 안정적인	진부한 무기력한
재학생	안정적인 전통있는	진부한 초조한	활력있는 자아발전의	불쾌한 불투명한
일반인	전문성있는 안정적인	불편한 진전없는	세계화된 안정적인	불투명한 진부한
고교생	활력있는 성공 가능한	불안정한 진부한	활력 있는 전문성 있는	구식의 무기력한
학부모	안정적인 자아발전의	진부한 진전없는	인정받는 안정적인	불안정한 초조한

아주대학교와 연합 강도가 강한 이미지 중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선정된 이미지는 안정과 활력이다. 그러나 진부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역시 대부분 계층에서 아주대학교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역시 주목해야 한다. 즉, 사람으로 묘사하자면 '안정적이고 활력이 있지만 변화가 적은 인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룹 간 분명한 차이와 추가적인 내용 역시 설명이 일부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개의 그룹 중 고교생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학부모는 아주대학교에 양가감정을 모두 보이고 있다.
- 외부 그룹(일반인, 학부모, 고교생)은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를 역량·기능 위주로 내부 그룹(교직원, 재학생)은 감성 위주로 가지고 있다.
- 일반인, 학부모, 고교생 모두 아주대학교의 짧은 역사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듯하다.
- 전반적으로 접근 동기보다는 회피 동기에 부합되는 이미지가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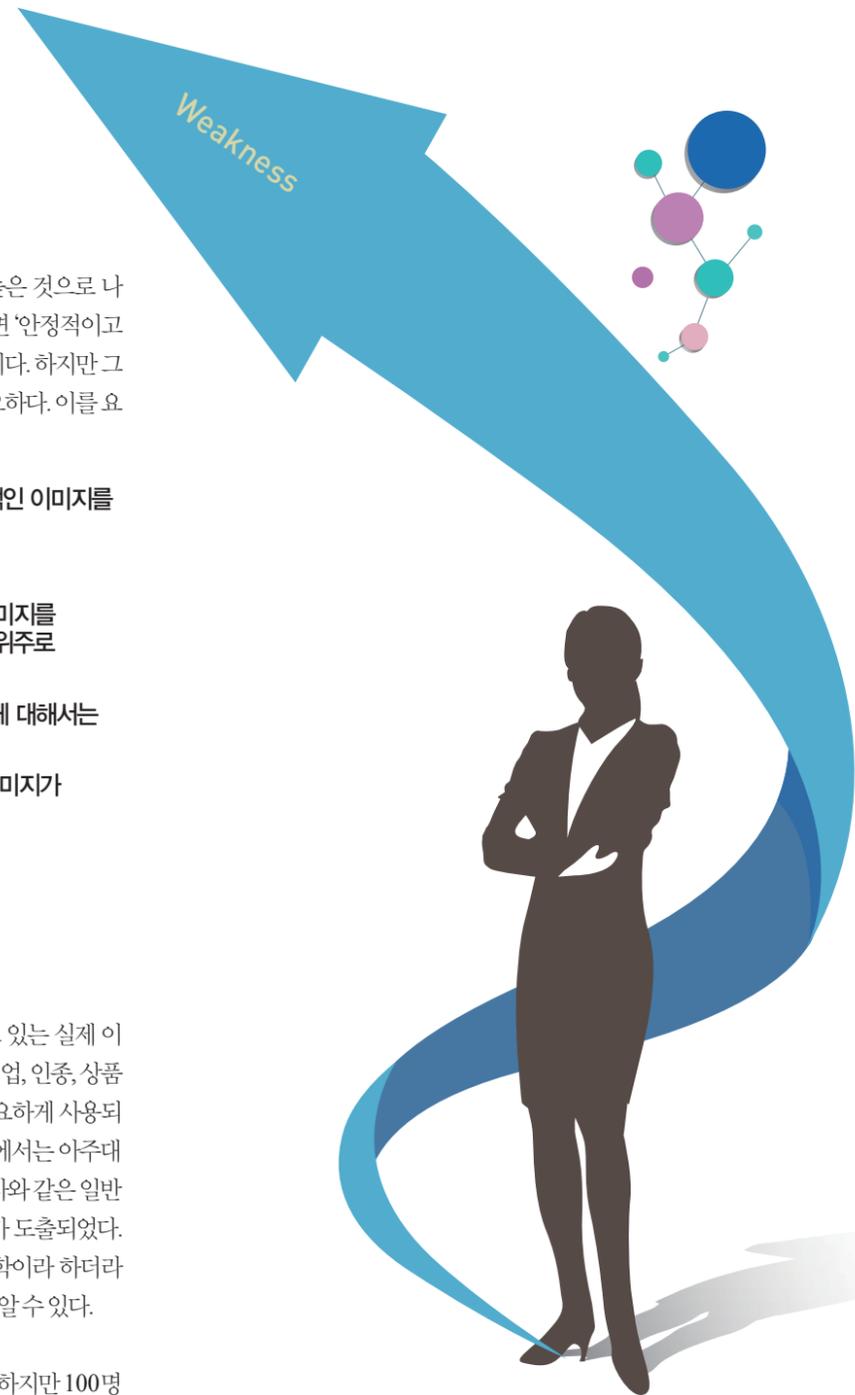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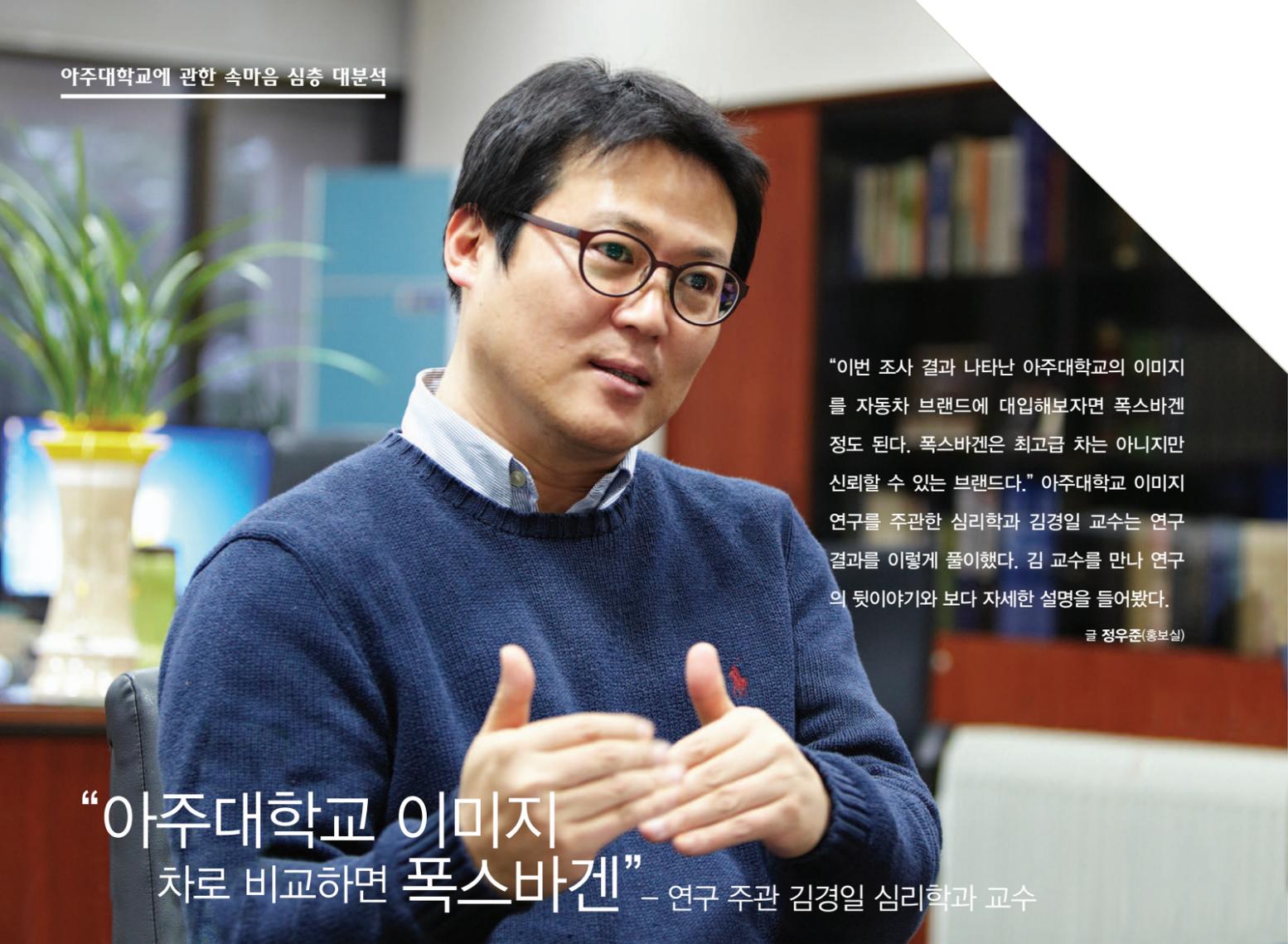
IAT 검사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실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해외에서는 기업, 인종, 상품 등 매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위해 최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대학의 이미지 분석에 사용한 것은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가 최초다.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첫째, 설문조사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이미지 조사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대학이 달라지면서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연합되어 있는 이미지의 상대적 순위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의 자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참가자들의 무의식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들을 정리하면 현재의 아주대학교는 안정성과 활력이 있지만 진부한 이미지도 동시에 갖고 있는 대학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는 향후 아주대학교의 발전 전략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황 적합도가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타 대학 및 타 대상 이미지 비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유용한 이미지 관련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연구책임자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배진희 심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를 자동차 브랜드에 대입해보자면 폭스바겐 정도 된다. 폭스바겐은 최고급 차는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다.” 아주대학교 이미지 연구를 주관한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풀이했다. 김 교수를 만나 연구의 뒷이야기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글 정우준(홍보실)

“아주대학교 이미지 차로 비교하면 폭스바겐” - 연구 주관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Q 이번 연구조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아주대의 이미지는 안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보통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대학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이다. 아주대학교는 역사가 40년이고, 입학정원도 2000명이 안되는데 안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은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히 큰 발전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려할까하는 궁금증을 갖고 보완조사를 동시에 시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실험 후반부 일부 참가들에게 ‘아주대학교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학부모와 일반인들은 대략 65년으로, 고교생들은 70-80년으로 추정하더라.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주관 교사 연수에서 참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냈다. 서강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중 어느 학교가 더 오래된 것 같은지를 물었다. 젊은 교사 중 60% 가까이가 아주대학교의 역사가 더 오래된 것 같다고 하더라.

이런 응답 결과에 대해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 분이 “서강대학교는 참조점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다. 그래서 그들 대학과 비교해 역사가 짧다는 것이 평생의 브랜드로 따라다닌다.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아직 참조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사람들 스스로가 학교 역사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역사의 길고 짧음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답하더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아주대학교의 약점으로 생각해왔던 ‘역사가 짧다’는 점은 실제 지금 아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 깊고 전통 있는 대형 대학들이 가지게 되는 안정성이란 이미지가 아주대학교에서도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Q 반면에 진부하다, 불투명하다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거론됐다. 변화가 적고 재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1990년대 중후반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는 대학 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변화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가 주도한 여러 개혁조치들을 타 대학이 대부분 따라오면서 지난 10여년의 아주대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듯하다. 내부적으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등 다른 대학이 잘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 자세를 견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력이 널리 알려지기까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Q 교수로서 접하는 아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성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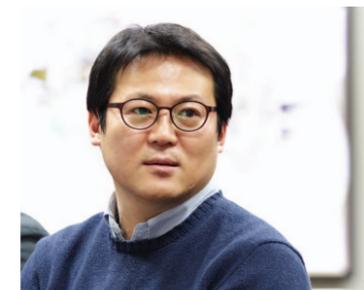
A 아주대학교 출신들에게 가장 많이 달라붙는 단어는 ‘성실’이다. 학생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교수들도 그렇고, 기업에 있는 분들도 아주대학교 출신하면 성실하고 무난한데 튀는 면이 적다고 지적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니 아주대학교와 관련성이 적은 단어 중 하나가 ‘재미’다. 아주대학교가 워낙 실용에 강한 공학계열의 비중이 크다보니 교내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가 적다. 자연히 학생들의 참여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아주대학교 출신 중에 연예인이나 예술가같이 튀거나 괴짜 같은 사람이 적다는 것도 아주인, 아주대학교가 재미있는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게 된 배경이다.

Q 이번 조사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대상이 총 120명이다. 만약 표본 수가 확대된다면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었다고 보나?

A 실험 대상자의 수, 즉 표본 수가 확대된다고 해도 실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조사 시점에 따라서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홍보가 진행된 다음에, 특정 홍보물을 본 다음에 다시 실험을 진행하면 결과가 꽤 달라지리라 본다.

Q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전전략을 짤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

A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한 이미지 조사는 조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상대적 이미지를 보여줄 뿐,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특정 분야의 구성요소를 더하고 빼기 어려운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흥미로운 비교 자료를 자동차 브랜드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 지도(perceptual map)를 보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브랜드를 스포티함-보수의 차원과 독특함-실용성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아주대와 대응되는 브랜드를 찾았다면 어떤 것과 유사할까? 아마도 BMW나 포르쉐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나 링컨과 벤츠 같은 전통 있는 브랜드는 아직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주대학교의 이미지가 안정성과 활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폭스바겐이나 닷지 정도가 아닐까 한다. 아주대학교란 브랜드는 최고급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도 않는 브랜드인 것이다. 따라서 아주대학교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하지도 분명해진다. 도요타나 닛산처럼 렉서스나 인피니티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이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BMW처럼 그 자체의 이미지를 바꿔나갈 것인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학업도전 · 지적활동 · 능동적 학습에서 우수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의 '아주대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분석 결과'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앞서 소개한 김경일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아주대학교 안팎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대학교 이미지를 짚어봤다. 때마침 아주대학교 학부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이 나와 이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배상훈 교수가 지난 1월7일 열린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3회 아주 ACE포럼>에서 발표한 '아주대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배상훈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학부교육의 질을 기존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생 관점에서 분석했다. 재정 투자와 취업률 등의 수치를 평가항목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학업도전 ▲지적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 ▲교우관계 ▲교수와의 교류 ▲지원적 대학환경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조사는 아주대학교를 비롯해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총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진단조사에는 총 1만8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아주대학교에서도 학생 4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학업도전과 지적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에서 모두 전체 대학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도권 대형 대학들과 비교해도 아주대학교의 결과가 우수했다. 이 항목은 수업 준비에 투자한 시간, 작성한 보고서의 양, 대학이 학업을 강조하는 정도, 수업 중 발표 활동, 수업 중 질문 및 토론 참여 등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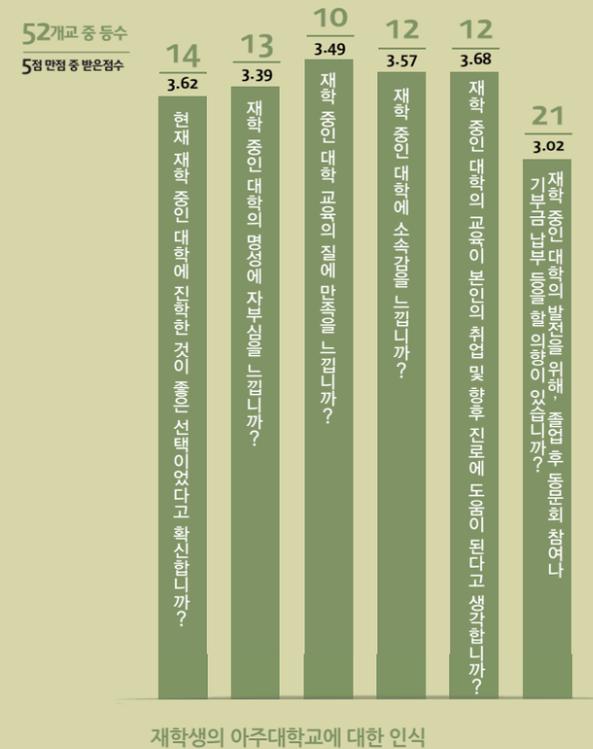
반면 지원적 대학환경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대학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고 교우관계, 교수와의 교류 항목의 경우 전체 조사대학 평균을 하회했다. 지원적 대학환경이란 동아리를 비롯한 교내 사회적 활동의 지원, 학업 성공을 돕는 지원 활동, 행정직원과의 관계 등을 말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아주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3.49점이 나와 비교대상 52개 대학 가운데 10위에 위치했고 학교의 명성에 자부심을 느끼느냐는 질문에서는 13위, 선택한 대학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14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 이에 비해 충성도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줄

업 후 동문회 참여나 기부금 납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54개 대학 중 21위에 해당하는 점수(5점 만점에 3.02점)가 나온 것.

배상훈 교수는 "대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변화가 핵심"이라며 "교수가 노력하면 학생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학 본부에서도 교수들의 변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또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과활동과 팀 활동 등을 장려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성화 노력, 교양기초교육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Focus

아르헨티나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 아주대 국내 처음으로 유치

글 이 슐(홍보실)



아주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유치한 '아르헨티나 국비 유학생 위탁교육 프로그램(BEC.AR)'이 성공적으로 첫 걸음을 뗐다. 아주대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남미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화의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장학 프로그램'을 뜻하는 BEC.AR는 스페인어로는 '장학금을 주다'라는 뜻이다. 과학기술 전문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아르헨티나 총리실이 주관한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아르헨티나 교육생 29명이 참여했다. 교육비용 전액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담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로도 총 268명의 학생들을 파견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대학교가 유일하게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주대학교는 BEC.AR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2013년 4월 아르헨티나 정부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선발한 29명의 교육생들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아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이공계 전문 인재인 아르헨티나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 연구과정으로 설계된 1년간의 교육과정을 3개월의 비학위 과정으로 압축해 재구성했다.

학생들은 1인당 총 432시간의 수업(27학점)을 수강했으며, 수업은 총 4개의 모듈(혁신적 경영방법론, 세부 전공 IT/BT/NT, 한국어, 현장학습)로 구성됐다. 임재익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을 필두로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대학 소속 교수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됐다.

BEC.AR 커리큘럼에는 정보통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 및 문화를 반영한 강의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수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 및 전략(History and Strateg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이라는 과목이다. 총 24시간이 배정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경제의 급성장 배경과 전략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대표를 맡았던 알릿 피오렐라 파쎬 폴리첼리(Alit Fiorella Fasce Pollicelli)는 "아주대학교 교수진의 뜨거운 열정과 훌륭한 강의 그리고 연구 업적에 감명 받았다"며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알릿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술 교사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HP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에르난 가브리엘 꾸

라쓰(Hernan, Gabriel Curras)는 "아주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IT, BT, NT와 같은 전문 분야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잘 활용해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은 2013 BEC.AR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남미 교육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고급화·다양화해 남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

권혁표 국제대학원 교학팀장은 "BEC.AR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운영하면서 아주대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꼈다"며 "아주대에서 단기 교육 과정을 수강한 아르헨티나 학생들이 아주대학교로 다시 돌아와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의 규모를 키우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BEC.AR 첫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남미 국가들도 아주대학교와의 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BEC.AR 성공 발판 삼아 고수준의 국제화에 박차 가할 터”

— 임재익 국제대학원장



아주대학교가 제안한 BEC.AR 프로그램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깐,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올 29명의 교육생을 맞이하기 위해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준비 작업에 분주했다. 교육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짜는 일부터 최종 입학생들의 비자 작업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 이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한 임재익 국제대학원장(e-비즈니스학과 교수)을 만나봤다.

2013 BEC.AR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소감은?

교육을 받고 돌아간 아르헨티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규모를 더 확대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 2월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지금은 2013 BEC.AR의 장단점을 돌아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다.

BEC.AR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이공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관점을 넣어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점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이공계 전문지식 교육이 아니라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이공계 전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덕분이다. 교육 기간이 3개월로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커리큘럼을 짜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생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으로 필드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착안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울산, 포항, 부산, 거제, 여수, 제주도 등을 방문해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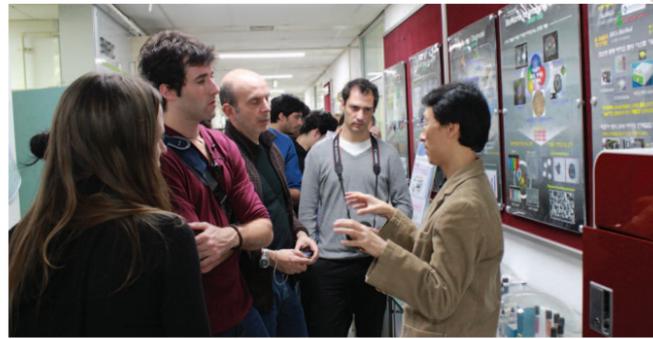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대학교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한 셈인데, BEC.AR의 의의를 평가한다면?

대학이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수익원도 확보하려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동안은 주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수준 높은 학생들을 유치해 보려 한다. 아주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교수진은 충분히 훌륭하다. BEC.AR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에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의의 중 하나다.

앞으로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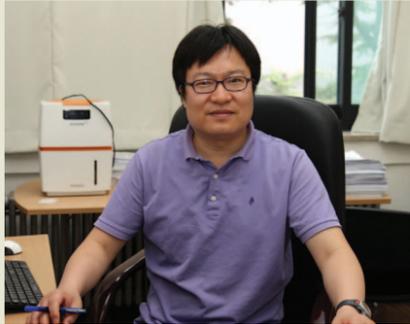
먼저 아르헨티나 정부와는 고수준의 연구·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가령 BEC.AR를 수료한 학생들이 다시 아주대학교로 돌아와 박사과정을 밟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방안이다. 지금은 국제대학원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유수의 대학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아르헨티나와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브라질, 에콰도르를 비롯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학과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국제경영, 국제통상, NGO, 국제개발협력 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 전공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학부에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에 뜻을 둔 외국인 학생들을 대학원으로 유치한다면 아주대학교 국제화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_People

김주민 교수팀, 휴대용 혈액분석기 핵심 원리 발견



김주민 교수(에너지시스템학과·화학과)팀이 초저농도의 DNA 용액 안에서 마이크로 입자가 정렬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향후 휴대용 혈액 분석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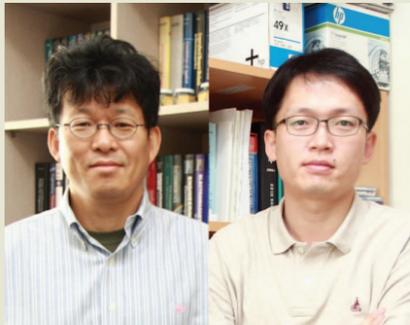
김주민 교수팀은 초저농도의 DNA 용액이 흐를 때 수 마이크로미터(백만분의 일 미터) 크기의 입자들이 미세채널의 중앙으로 정렬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연구결과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직접 혈액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초소형 미세유체소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 혈액 분석기 개발에는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포와 같은 미세입자를 공간적으로 집중시키는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 기존에는 복잡한 구조의 채널이나 전자기장 발생 장치와 같은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했다.

김주민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발전시킨다면 휴대용 혈액분석기는 물론 고성능 세포분석기 등과 같은 기기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에는 에너지시스템학과 석사과정의 강교원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박익모·박용배 교수, 한국전자파학회 우수연구자상 수상



전자공학과 박익모 교수(사진 왼쪽)와 박용배 교수(사진 오른쪽)가 한국전자파학회가 시상하는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2월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5차 한국전자파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2013년 처음 수상자를 낸 우수연구자상은 학술 업적이 뛰어나 전자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중견 연구자 4명과 40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 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견 우수연구자상 수상자인 박익모 교수는 테라헤르츠파 분야가 전공으로 한국전자파학회 학회지 편집상임이사, 테라헤르츠파 및 광파연구회 회장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젊은 우수연구자상을 받은 박용배 교수도 전자장 해석 분야를 전공으로 한국전자파학회 사업이사, 국문논문지 부편집장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기 전자 분야 학회인 IEEE(미국전기전자학회) 시니어 멤버로 활동 중이다.

로스쿨 오동석 교수,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시민 인권 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

평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로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센터 개소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 교육 ▲지역사회 인권증진 사업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페스티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스쿨 한상돈 교수, 한중법학회 회장으로 선출

법학전문대학원 한상돈 교수가 지난 12월13일 개최된 한중법학회(韓中法學會)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이다.

1994년 발족한 한중법학회는 중국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다. 현재 법학 교수, 변호사, 판·검사로 구성된 27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충권 교수,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 취임

강충권 교수(불어불문학과)가 한국불어불문학회(SCLLF) 제4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1년이다.

한국불어불문학회는 1965년 설립된 학회로 86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충권 교수는 1988년 프랑스 몽펠리에 3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0년부터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일해 왔다.



김의환 교수,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회장에 취임

대학원 시스템공학과 김의환 교수가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회를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The Korean Society of System Engineering)는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 학문 교류를

1989년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의환 교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해오다 지난 2012년 아주대 교수로 부임했다.



홍민선 교수 지도학생들, 기말보고서로 특허 등록

홍민선 환경공학과 교수가 지도했던 학부생들의 기말보고서 2건이 2013년 4월과 9월 각각 특허 등록됐다.

이번 특허 등록은 지난 2010년 홍민선 교수가 강의했던 '환경시스템설계' 수업에서 시작됐다. 홍 교수는 당시 강의를 시작하면서 환경시스템 관련 장치를 실제로 제작해 보고 동시에 특허출원을 목표로 관련 장치를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강의는 손조롭게 진행됐고 4개조로 나뉜 18명의 학생들은 학기말에 예정대로 과제물을 제출했다. 홍 교수는 이 중 1개 조를 탈락시키고, 다른 3개 조의 결과물들의 내용을 가다듬어 2011년 특허출원을 했다. 그 중 2개 조의 결과물이 최종 특허 등록에 성공한 것이다.

홍 등의 장애물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휠체어를 쉽게 이동하도록 도와준다. 다른 특허 등록 장치는 '평행 사이클론'이라 불리는 사이클론 원리를 이용한 집진장치다. 기존의 장치보다 미세입자의 집진 효율을 향상시켜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 소형 청소기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홍민선 교수는 "향후 엔지니어로서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특허출원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학생들의 향후 사회생활에도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특허 등록을 받은 발명품은 휠체어로 몇 개의 간단한 기어(톱니바퀴)들을 이용해 작은 힘으로 턱이나

안 보이는 것을 보다

고출력 광대역 T-레이 핵심 소재 개발

권오필 ___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이상민 ___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한 정부기관에 협박전화와 함께 흰색 편지봉투가 배달됐다. 엑스레이를 비롯한 기존의 측정기술로는 이 봉투를 열지 않고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선불리 봉투를 개봉하기도 어려운 상황. 편지봉투를 뜯지 않고도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을 안전하게 판별할 수 있을까?

글 이 슐(홍보실)

편지봉투 속의 위험물뿐 아니라 인체 피부 속의 암조직, 가방 곳곳에 숨겨진 마약류 등을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테라헤르츠 광원(T-ray)이라는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광파나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이 광원은 인체에 무해해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테라헤르츠 광원이 저출력인데다 광대역 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분석할 수 있는 물질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더 많은 물질을 더 잘 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역이 아주대학교에 있다. 바로 권오필(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와 이상민(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다.

권오필-이상민 교수는 테라헤르츠 광원 발생에 핵심이 되는 새로운 원천소재를 개발해 광원의 발생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유기물질로 이뤄진 이 원천소재는 그동안 쓰이던 소재들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 원천소재에 대한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013년 11월1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 원천소재를 이용하면 고출력 광대역의 테라헤르츠파를 만들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물질이라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고유 패턴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면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 테라헤르츠파는 액체류와 같은 단단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감식 능력이 뛰어나 액체류로 만들어진 위험물질 탐지와 암조직과 같은 인체 피부 조직 검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질은 투과하고 전기를 띠는 금속성 물질에는 강하게 반응. 기존의 탐지 분석 기법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기존의 엑스레이는 단단한 물질만을 탐지할 수 있고, 전자기파 기술은 금속성 물질만을, 광학적 분석법은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권오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유기소재를 활용하면 기존의 제한된 테라헤르츠 기술을 보완할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의 물체와 위험물, 포장 후의 제품 등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술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연구로 시너지... 아이디어 교환하며 융합연구

이번 연구 성과는 전공 분야가 다른 두 교수의 합작품이다. 분자과학기술학과 소속의 권오필 교수는 친환경·전도성 고분자와 T-레이 관련 유기소재를 연구하고 있고, 에너지시스템학과 소속의 이상민 교수는 레이저·비선형 광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다. 두 교수는 꾸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논문 한두 편으로 끝나버리기 쉬운 공동연구 작업이지만 두 사람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상민 교수는 “공동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자들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알고, 이를 합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같은 학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오필 교수 역시 “학생들에게도 공동연구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기 분야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가까운 곳에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파트너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권오필 교수는 아주대학교 공업화학(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90학번으로 석사·박사를 모두 아주대학교에서 마친 뒤 2007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교수로 후배들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는 아주대학교 학생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왔을까?

“우리 학생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잠재력 또한 뛰어납니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면 못 할 일이 없지요. 그럼에도 대다수 선배들이 하던 대로, 그냥 무난한 길을 따라만 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무엇, 즉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교수의 생각 역시 비슷하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장을 던지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주소가 아쉽기만 하다.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학점이 좋고 나쁜 것보다 열의와 관심이 더 중요함을 실감한다”라며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용감하게 연구실 문을 두드려보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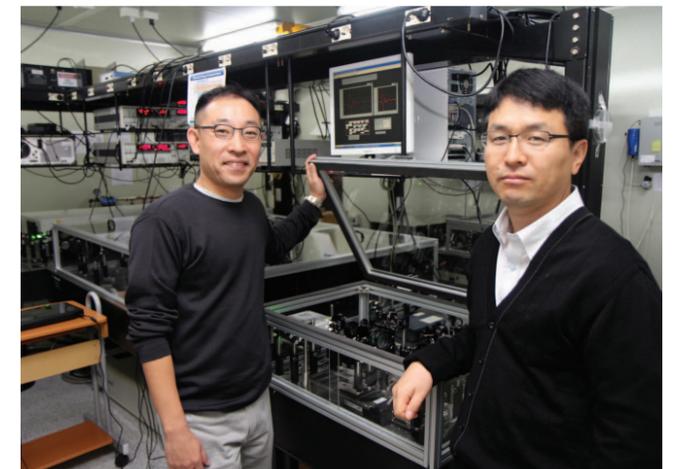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이상민, 권오필 교수

세포 내 생명현상을 읽다



생체 내 산성도 정밀 분석 가능한 형광 분자 센서 개발



‘질병 없는 세상’이란 꿈의 현실화가 한 걸음 앞당겨졌다. 지난 12월 아주대학교 화학과 김환명 교수팀이 개발한 형광 분자 센서는 생체 내의 산성도 변화를 통해 세포 단위의 이상징후를 알아낼 수 있는 첨단 소재다. 이를 활용하면 질병의 조기진단은 물론 예방까지 가능하다. 김환명 교수는 앞으로 더 다양한 목적의 센서를 개발, 이를 진단시약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글 김혜진(편집실)

김환명_ 화학과 교수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 성과를 잇달아 내놓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구팀이 있다. 아주대학교 화학과의 김환명 교수 연구팀이 바로 그들이다. 김 교수 연구팀은 2012년 생체 내 금속 이온 센서와 산화 스트레스를 연구할 수 있는 형광 센서, 2013년 초파킨스병과 알츠하이머 병 등 신경질환의 기전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광 센서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생체 내 산성도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형광 분자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생체 내 산성도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형광 분자 센서는 김환명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세포 내 산성도를 실시간으로 관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23일, 김환명 교수의 실험실을 방문했다. 실험실 한쪽 모니터에는 녹색이 대부분을 이룬 위에 붉은 색 선과 점이 나타나 있는 영상이 띄워져 있었고, 연구원들이 그 색깔 변화를 체크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번에 개발한 센서를 이용해 촬영한 쥐의 뇌조직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이룬 가운데 붉은 선이나 점 등이 보이죠. 그 부분이 뇌의 신경세포가 발생하는 부위인데, 이 영역의 산성도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는 산성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 영상화함으로써 조직 내의 이상징후를 알아낼 수 있죠.”

김환명 교수가 모니터를 보며 이번에 개발한 센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생체 내 각 조직은 일정한 산성도를 띠고 있으며, 이는 세포 내의 각 부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산성도가 변한다는 것은 세포 내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암이나 신경질환 등 질병의 발현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생체 내 조직의 산성도 정밀 측정은 의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온 이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포 내의 산성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센서는 물에 잘 녹는 유기물질(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인체에서 떼어낸 세포 조직 안으로 쉽게 녹아들어가다. 여기에 적외선 영역의 빛을 쬐어주면 산성도(pH)에 따라 다른 색의 형광색을 띠게 된다. 색의 변화를 통해 세포 내 산성도 차이와 생명활동에 따른 산성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현미경을 통해 바로 영상화가 가능하다. 이 형광센서를 사용하면 세포 크기보다 작은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체 조직의 산성도를 0.1단위 이하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친 김환명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 질병의 조기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형광 분자 센서 개발이 주는 가장 큰 의의일 겁니다. 질병은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 단위 이상에서 시작을 하죠. 따라서 이 형광 분자 센서로 세포 내의 이상징후를 잡아내 질병의 경로를 연구할 수도 있고 조기진단도 할 수 있겠지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포 내의 다양한 생명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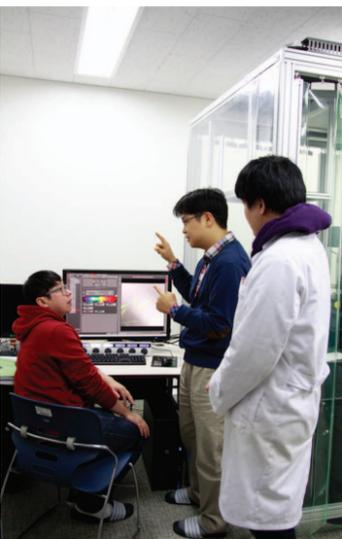
이광자 표지자를 개발한 유일한 연구팀

김환명 교수의 연구실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실 서가에는 지난 8월 대한화학회로부터 받은 ‘젊은 유기화학자상’ 상패가 놓여 있었다. 당시 대한화학회에서 밝힌 선정 이유는 ‘김환명 교수가 젊은 유기화학자로 생체영상에 유용한 이광자 표지자 개발에 관해 독창적이며 탁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유기화학분과회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이광자 표지자 개발’이 생체영상 기술에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는 생체영상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초점(共焦點) 현미경을 써왔습니다. 공초점 현미경으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사용했는데, 이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세포 손상이 일어난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 이광자(二光子) 현미경을 써서 생체영상을 얻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이광자 현미경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생명현상을 관찰할 수 있지요. 우리 팀은 이 현미경에 적합한 형광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광자 표지자 개발은 우리 팀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팀은 세 가지 종류의 형광 센서를 개발했고 현재도 여러 가지 목적의 형광 센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진단시약 개발까지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김환명 교수팀의 향후 비전이다.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김 교수팀의 연구 행보에 기대가 실리는 것은 그들의 연구가 ‘질병 없는 세상’에 대한 인류의 바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Ajou univ. news

_Event

‘2013 한·중·일 이공학 포럼’ 개최



아주대학교가 '제6회 한·중·일 3개 대학 이공학 포럼'을 개최했다. 이공학 포럼은 아주대학교와 중국의 산둥대학교, 일본의 쿠마모토대학교 3개 대학이 연구 분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2010년 제3회 이공학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이번 한·중·일 이공학 포럼은 11월7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및 생화학 분

야 이공학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해 총 43개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아주대학교는 일본 쿠마모토대학교 장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일본 쿠마모토대학교 장학생들은 이번 포럼 기간에 맞추어 아주대학교를 방문, 10곳의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약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략과 네트워킹’ 국제 심포지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과 약과학연구소가 11월19일 다산관 대강당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약대는 병원과 약학 관련 산업체,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약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식 기반 전략과 네트워킹(Knowledge-based Strategy and Networking for Global Drug Research and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학 분야 기업체 및 연구소 종사자, 의·약학 관련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대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세션1 최근 동향 및 미래 연구 방향 ▲세션2 연구 전략 ▲세션3 연구 계획 수립 및 특허 순으로 진행됐다. 신영근 충남대학교 약대 교수,곽우리 C&K 제노믹스 연구원, 박해심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량팡 선양약학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졸업생 CEO-재학생 멘토링 결연식



공학교육혁신센터가 10월29일 졸업생 CEO 20명과 공과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멘티 결연식'을 열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공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대 및 정보통신대학 학생들이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결연식 행사 이후 졸업생 멘토들과 재학생 멘티들은 1시간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했다. 공식적 멘토링은 향후 1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졸업생 출신의 CEO로 구성된 모임인 '아주 CEO포럼'의 강태현 회장(이너비트 대표이사)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 CEO들이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윤호 공대 학장은 "앞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북아 프랑스어권 대학 학술 심포지엄

아주대학교 불어권 협력센터와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관하는 '2013 동북아시아 프랑스어권 대학 학술 심포지엄(UNIFA 2013)'이 9월28~29일 성호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동북아시아 불어권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문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의 아프리카 연구 상황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아프리카와 맺고 있는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특별히 카메룬과 베냉 출신의 저명학자들이 초대되었다. 카메룬의 프랭스 포캄(Prince Pokam)은 중국 이주노동자들과 카메룬 재건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베냉 출신의 유네스코 아프리카 문화 담당관인 알랭 고도누(Alain Godonou)는 유네스코 한국 번역 전문가 김현주와 함께 한국 번역의 흐름을 통해 본 아프리카의 존재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일본과 아프리카의 관계와 전방, 공고민주공화국의 농업 발전과 한국의 역할 등 동북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에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고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의미 있는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제1회 의·약학 공동 심포지엄 열려

아주대학교 의대와 약대가 공동 주관한 '제1회 아주대학교 의·약학 공동 심포지엄'이 지난 9월2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학 협동연구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의대 및 약대 교수진과 관련 연구원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아주대학교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계기로 의료원과 약학대학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소의영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은 "아주대학교는 주변에 경기바이오센터를 비롯한 대형 연구기관 및 국내 주요 제약회사 연구소가 밀집해 있으며, 의대와 약대 그리고 부속병원이 동일한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학제 간 또는 산-학-연-병 공동 연구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그동안 쌓아온 우수한 중개연구와 임상연구 결과가 약학과 산학 협력 공동 연구를 통해 신약 개발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문화제 '명성황후' 공연 성황리에 마무리

개교 40주년을 맞이해 총학생회와 학생처가 공동 주최한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이 지난 11월28일 저녁 체육관에서 약 3500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아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안재환 총장은 공연 시작 전 인사말에서 "오늘 같은 공

연들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의 열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명성황후는 오후 7시부터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상업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예약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예술영화들은 전용관에서 소수 애호가들의 향유물로 조용히 막을 내리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예술영화가 주는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예술영화를 사랑하는가?

정경훈 _ 영문과 교수

오랫동안 국내의 상업영화들은 계급혁명, 사형 폐지, 국가주의 비판 등 진보적인 내용을 스토리에 담기를 꺼렸다. 하지만 요즘 진보적인 스토리를 담은 상업영화들이 국내외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국내 영화를 보면, 사형수의 문제를 따뜻한 휴먼 코미디로 전달한 '7번방의 선물'이 1200만, 계급혁명을 SF 스타일로 다룬 '설국열차'가 900만 관객을 동원했고, 군사독재에 분연히 항거하는 변호사를 다룬 '변호인'이 지난 1월10일 816만4900여 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 1000만 영화를 예약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진보적인 스토리를 적극 꺼안고 있다. '지구에 사는 인류는 국가에 상관없이 하나라는 초국가주의 메시지를 담은 '그래비티'는 제작비의 6배에 달하는 6200억원, 계급의 벽을 허무는 사회혁명을 다룬 '엘리시움'은 제작비의 2배가 넘는 2900억원의 흥행수입을 기록했다.

상업영화들이 진보적인 스토리를 통해 흥행에 성공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영화의 본령이라 생각되는 예술영화들은 여전히 관객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창동의 '시'와 김기덕의 '피에타'는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과 베니스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지만 22만, 60만의 관객 동원에 그쳤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사회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상업영화는 환영하지만,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진지하고 깊숙하게 다루는 예술영화는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의 예술영화는 외롭지만은 않다. 영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업영화는 대개 한 번 보고 말지만 예술영화는 두 번, 세 번 보게 된다. 예술영화는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이야기와 더 깊은 감동을 들려준다. 상업영화가 단순히 재미를 주는 데 그친다면 예술영화는 깊은 감동을 일으켜 관객의 마음과 가슴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이런 영화를 우리는 걸작 또는 명화라 부른다.

한국 예술영화의 걸작 '시'를 예로 들어보자. 6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 니 미자(윤정희 분)는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희진이 강에 투신자살해 그녀의 어머니가 실성한 사람처럼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미자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으로 사랑해 마지않는 손자 종욱이 성폭행의 가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폭행 가담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교, 경찰과 함께 사건을 쉬쉬하며 희진의 어머니에게 보상금을 주어 일단락 지으려 하고, 희진 어머니도 이에 합의한다. 미자도 종욱 몫의 보상금을 마련하고 부모들은 사건을 이제 비밀 속에 묻을 수 있게 된다. 영화는 욕망의 만족을 위해 타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어도 자기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죄를 덮어버리는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스토리는 상업영화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영화 '시'는 일반 상업영화들과 달리 필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첫 번째 충격은 미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종욱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도 희진처럼 강에 투신하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의 타자에 대해 측은지심을 느낀다 해도 곧 눈감아버리고 자기 편익과 이익을 찾기에 급급해 하는 우리 사회에 익숙한 필자에게 그녀의 윤리적 행위는 충격이었다. 보상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하기보다 희진의 미사에 가고 성폭행 당한 교실에 가보며 타자와 공감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그녀는 숭고함을 느끼게 했다.

'시'가 준 두 번째 충격은 미자의 숭고한 책임의 행위가 '시 쓰기'라는 심미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웃의 고통에 단순히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갖고 함께하려는 공감적 윤리감이 일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 쓰기의 예술감성에 의해 아름답고 숭고한 윤리적 실천으로 나간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준다. 윤리적 공감 감성이 심미적 감성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말한 철학자는 필자가 아는 한 없었다. 현대윤리학의 대가인 레비나스(E. Levinas)에게도 윤리와 심미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술영화 '시'는 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시'처럼 훌륭한 예술영화는 관객에게 충격과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준다. 충격을 받은 관객은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관객은 더 깊은 깨달음과 진한 울림의 감동을 경험한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 존재방식도 바뀐다. 이러한 충격, 깨달음, 울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술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학부생 연구 시행 2년, 국제 학술지에 논문 쓰는 아주대 학부생

▣ 박영동 — 교무처장, 화학과 교수

학부생 연구 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을 맞는다. 그간의 성과는 제법 눈부시다. SCI 논문 2편, 국제학술지 5편, 국제 학회 발표 12편, 국제 논문 경진대회 입상 3편, 교외 작품 경진대회 입상 1건, 국내 학술대회 2편.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성과는 학부 학생들이 연구를 통해 통합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 2년, 학부생 연구 사업을 돌아본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모든 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학부생 연구(UR, Undergraduate Research)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자의 길이 아닌 사회 진출을 원하는 학생이 대다수임에도 우리가 학부생들에게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연구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로소 학문과 공부, 그리고 도전과 보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서다. 지적 탐구를 해나가면서 학문에 필요한 자세, 소통, 관점들에 대해 또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고 배워갈 것 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연구'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미 4년의 대학생활을 마친 졸업생들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학부생이 교수와 공동으로 저명한 해외 저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79명의 아주대학교 학부생들이 연구 경력을 쌓았다. 그들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질병의 비밀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험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면서 앞으로 펼쳐질 생명과학자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과 김다은, 나상준, 심재광 학생팀의 UR 참여수기 중에서)

“경영학을 교과서로만 배울 때는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했는데, UR을 통해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됐다.”

(경영학과 신영훈, 유인철 학생팀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중에서)

지금까지 학부생 연구의 결실은 제법 화려하다. SCI 논문 2편, 국제학술지 5편, 국제 학회 발표 12편, 국제 논문 경진대회 입상 3편, 교외 작품 경진대회 입상 1건, 국내 학술대회 2편.

학생이 스스로 실천해 볼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다. 요즘 그토록 강조하는 통합적 사고, 융합,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교육, 팀워크 등 온갖 혁신적 교육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학부생 연구이다.

연구를 하다보면 항상 소기의 목표대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UR에서는 제대로 된 실패 또한 성공한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2013년 11월, 1년간 열심히 연구한 우리 학부생들이 '학술대회'를 가졌다. 모든 참가팀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발표했다. 단과대학별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참관한 동료 학우들의 질의응답으로 연구가치,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평가하여 총 1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팀들 중에는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신지 못했어도, 국제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어도 수상의 영예를 안은 팀이 있다. 비록 연구의 결과는 성글지만, 우리는 연구과정에서의 통합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 등을 높이 샀다.

매년 연구 결과를 결산하여 수상한 팀에게는 해외 학회 참가 또는 해외 우수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아주의 자랑으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UR 활성화 위해 전공 교육과정과의 융합 추진

요즘의 학부생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취직을 해야 할까, 대학원 진학을 할까, 창업을 할까. UR은 고민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무대다.

사실 학부생들이 교수들로부터 수업 외의 시간에 직접 지도를 받기란 쉽지 않다. 국내 대학들의 경우, 학부생들이 교수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얻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교수를 찾아가 연구실 문을 두드릴 적당한 명분이 학생들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이다. 학부생 연구는 이러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교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것도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문적인 주제로 말이다.

우리는 학부생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공 교육과정에 녹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UR 과목을 독립적으로 개설한 학과도 있고, 기존 전공 교과목을 UR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과도 있다. 전자공학과와 경우 기존 자기계발 장학을 UR과 접목시켜 학과 차원에서 UR 결과 심사를 통해 우수한 학생 20명을 데리고 싱가포르 대학 방문 및 전자박람회 참관 등 해외교류를 진행했다. 2014년에는 UR을 통해 학과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과와 UR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즐겨라!

- 아주대학교 출신 첫번째 장군, 김성진 동문



김성진 39사단장(기계 80)

군대는 큰 조직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군대가 차지했던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군대에서 '별'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 굳이 긴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하다. 아주대학교에도 별이 된 동문이 있다. 아주대학교 공학계열(현 기계공학과)에 1980년도 입학한 김성진 동문이 그 주인공. 김성진 39사단 사단장을 만나봤다.

글 정우준(홍보실)

김성진 동문은 아주대학교 78학번이던 화학공학과 출신 친형의 뒤를 이어 기계공학과(당시 공학계열)에 1980년 입학했다. 학군단 생활을 거쳐 입대 후에는 특공연대, 특공여단 작전참모, 이라크 자이툰사단 참모장, 특전여단 참모장, 합참 특수전 과장 등 군인들도 힘들어하는 부대에서 주로 근무하다 지난 2013년 11월 아주대학교 동문으로는 최초로 경남 진 지역을 담당하는 제 39보병사단 사단장에 임명됐다.

김 장군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972년 중령으로 예편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고 자신의 성격에도 맞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학군단 후보생 생활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병과도 보병을 택했다. 당시 기계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 장군이 보병으로 병과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아버지의 조언 한마디에 보병 병과로의 변경을 밀어붙였다.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시작한 군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군대가 워낙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선배'가 없다는 현실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김 장군에게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계기가 됐다.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밑거름이 되어준 것. 이런 자세가 지금 성공을 이룬 최고의 비결이 됐다.

김 장군은 8박9일 동안 400km를 걷는 천리행군을 5번이나 완주한 예를 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누가 대신 걸어주는 거 아니더라. 한발 한발 걷다보면 언젠가는 완주하는 법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군은 평소 무엇을 하며 지낼까? 군대를 다녀온 수많은 복학생들이 가지는 궁금증이다. 이에 김 장군은 "지원되는 차량도 있고, 부관도 있어 분명 편리한 점들은 많지만 일상생활은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지휘부대의 전투력을 유지, 상승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그에 따르는 각종 회의와 의사결정들로 인해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는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현대전 양상을 봤을 때 원활한 군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민관군경의 협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평소 경남도지사,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외부 기관장들과의 협조와 협의에도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군에게는 군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이 있다. 군인정신, 사생관(死生觀) 그리고 전문성이 바로 그것. 군인정신은 군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덕목으로 명예에 대한 존중, 필승의지, 용기, 애국애족 등의 포괄적인 의미다.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即死 必死即生)'과 같은 사생관도 중요하다. 군인이라면 투철한 소명 의식을 내재하고 있는 사생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다. 군 본연의 임무는 누가 뭐래도 전투인 만큼 전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생 군인인 김성진 장군에게도 학군단 후보생 시절은 정말 힘든 시기였다. 당시 아주대학교 학군단은 '군대 저리거라' 할 정도로 군기가 셋기

때문이다. 잦은 집합과 애증의 매, 500m 앞에 있는 선배들에게도 큰 목소리로 절도 있게 하던 거수경례, 매주 8시간씩의 군사교육, 방학기간 이루어지는 4주의 군사훈련 등이 지금 생각나는 대학시절의 모습이다.

그는 "당시에는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행복한 추억이다. 힘든 후보생 시절을 겪었기에 험난하다는 군인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아주대학교에 학군단이 없었으면 지금 군 생활도 할 수 없었고,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아주대학교 출신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라고 전했다.

특정 대학에는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서가 있다. 김 장군에게 아주대학교에서 체득하게 된 모교만의 정서에 대해 묻자 그는 '도전정신'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당시 아주대학교는 단과대학으로서 공대생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시절이고, 재학생들 사이에선 수원이라는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실 있는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다. 자연스럽게 아주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도전정신'이 내재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도전정신은 김 장군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군 생활의 시발점이 된 아주대학교와 후배들에 대한 김 장군의 애정은 남다르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군대에서는 더욱 이런 마인드나 행동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 한 번 범한 실수나 과오를 교훈삼아 다시 우를 범하지 않고 일을 하기 전 사지사지(思之思之,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과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심어린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 장군은 "아주대학교 재학시절 학교 주변이 황량했었다. 지금은 천지 개벽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모습인지 무척 궁금하다. 한번 가보고 싶다"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제18회 인터내셔널 데이

18th Ajou International Day

44개국 학생 한자리에...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열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가 11월 7일 체육관 옆 잔디광장에서 진행됐다.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는 아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어울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44개국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자국을 대표하는 부스를 준비하고 전통 복장과 음식 등을 선보였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내·외빈이 참석한 개막식과 축하 공연(무예 24기, BEAT), 줄다리기, 장기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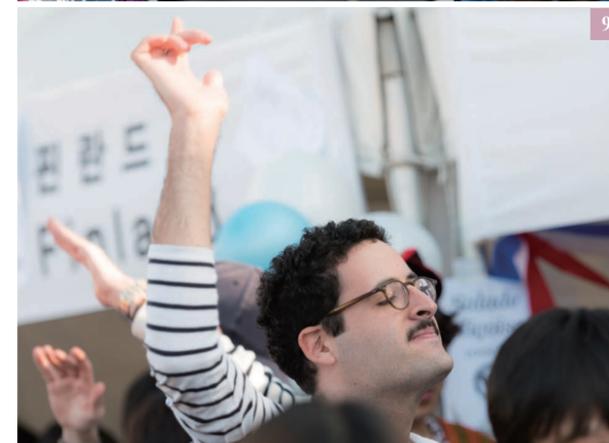
안재환 총장과 소의영 의무부총장, 유재석 대학원장, 각학장 및 처장 등이 참석했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과테말라 대사관, 가나 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중국 산둥성 대학 및 중국 자매대학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신랑신부 전통의상 체험과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민속놀이 체험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안재환 총장은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를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이종훈 작가

- 1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 2 안재환 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개막식
- 3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에는 44개국 6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 4 "우리, 어떤 걸로 우리나라를 뽐내 볼까?"
- 5 같은 나라 유학생끼리 화기애애하게 의견을 모아본다.

- 6 전통의상을 입은 친구와 악수도 나누고~
- 7 우리 모두 "김치~", 베트남 부스에서 기념촬영 '찰칵~'
- 8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고 예쁘게 웃고 있는 참가자
- 9 세계 축제를 방불케 하는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장



Ajou univ. news

Award & Selection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15위,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

아주대학교가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12년보다 1계단 상승한 15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는 10월7일자 지면을 통해 2013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포스텍(포항공대)이 1위에 올랐고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아주대학교는 총점 174점(300점 만점)으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일보 평가는 ▲국제화 ▲교수 연구 ▲교육여건 및 재정 ▲졸업생 평판 및 사회 진출도를 각각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아주대학교는 졸업생 평판

및 사회 진출도에서 17위, 교수 연구 부문에서 18위에 올랐다.

졸업생 평판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15위)', '기부하고 싶은 대학(18위)' 등의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교수 연구 부문 평가에서는 ▲교수 당 자체 연구비(13위) ▲교수 당 기술이전 수입액(18위) ▲교수 당 국제 학술지 논문(19위)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국제화와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에서는 각각 19위, 23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 BK21플러스 최종 선정

미디어학과 오규환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은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가 선정한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 사업단에는 총 54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각 사업단에는 매년 약 17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은 교육부가 문화콘텐츠, 디자인, 관광, 건강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석·박사급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준비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최종사업팀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은 미디어학과와 심리학과에서 총 16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 디지털 테라피(Digital Therapy)란 인간의 감성을 치유하는 디지털 치유 콘텐츠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성 및 행위 데이터가 모여 만들어진 온라인 스마트 환경이다.

사업단은 "디지털 테라피" 연구를 통해 스마트 환경에 대한 교육과 소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소셜 융합 IT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장중순 교수 연구팀, 아시아품질경영학회 우수논문상

산업공학과 장중순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아시아품질경영학회(Asian Network for Quality, ANQ)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ANQ는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장중순 교수와 김기태(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차봉환(산업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을 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 수상자로 선정했다. 논문에 참여한 명지대학교의 김종만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연구팀도 함께 상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PHM 어플리케이션의 FMMEA

절차(A FMMEA Procedure for PHM Applications)'라는 제목이다. 논문은 최근 신뢰성 공학에서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고장 예지 및 건전성 평가(PHM) 설계를 위한 FMMEA(Failure Mode, Mechanism and Effect Analysis)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김기태 학생은 "PHM이란 진일보된 신뢰성 예측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시스템의 잔존수명을 예보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PHM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시스템학과 백민호·손중찬, 자원경제학회 논문상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대학원생 2명이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관한 '2013년도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고갈자원, 자원개발 등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공모했다. 학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백민호(에너지시스템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울릉도의 전력수요를 반영한 신재생복합 전력시스템의 보급 타당성 분석'으로 우수상(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상)을 받았고 손중찬(에너지시스템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한국과 EA 에너지밸런스 표 비교분석 연구'로 장려상(에너지경지연구원장상)을 받았다.

e-비즈 재학생 2팀, RUN BETTER 창업 경진대회 대상·최우수상 수상

'2013 RUN BETTER 창업 경진대회'에서 아주대학교 재학생 두 팀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3 RUN BETTER 대회는 e-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인 SAP코리아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투자사 등이 후원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경영혁신 방향을 찾고 유능한 인재와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3개월 동안 150개 팀이 참가, 예선을 벌인 뒤 최종 7개 팀이 결선에서 오디션 형식으로 경합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대상을 수상한 최종민·김마아(e-비즈니스학과 3학년) 팀은 '정확한 택배 도착 구축 시스템'을 제안했다. 실시간 택배 추적 경로를 시각화해 택배기사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영휘(e-비즈니스학과 4학년)·김선규(e-비즈니스학과 3학년) 팀은 '능동적 축구 시청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아이템을 제안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수동적이었던 축구 시청자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다각도 카메라 앵글, 모션 인식을 통한 경기 정보 제공, 시청자 참여 베틀 등이 가능하다.

대상 수상 팀에는 상금 1000만원과 부상이, 최우수상 수상 팀에는 상금 500만원과 부상이 주어졌다. 그밖에도 결선 진출자에게는 ▲창업진흥원 보육센터 입주 ▲정부기관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인턴십 및 프로젝트 경력 인정 등의 혜택이 있다.



대학원 김다연 학생,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발표대회서 장관상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다연 학생(사진)이 '2013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전국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다연 학생팀은 아주대학교 학부 재학생인 설영은, 함상아 학생과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에 재학 중인 김기은, 이아란 학생, 시흥 매화고에 재학 중인 김지영, 이우미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마이크로캡슐과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이중약물 전달

시스템의 항암효과를 연구해 암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학연구팀제 사업은 공학을 전공하는 여자 대학원생이 대학생, 중고교생 등과 팀을 짜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매년 3~4월에 참가팀을 모집, 선정된 팀은 6~7개월간의 연구 수행 후 11월에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다.



URP 참여 배푸름 학생, 한국정보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배푸름(정보컴퓨터공학과 4학년, 사진) 학생이 한국정보과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에서 일반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배푸름 학생이 2013년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을 통해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국정보과학회는 지난 11월15~16일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배푸름 학생의 논문을 정보통신 분야 일반부 우수논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영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로 함께 논문상을 수

상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일반 부문과 학부생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있으며 배푸름 학생은 일반 부문으로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논문의 제목은 Wi-Fi Direct 기반 사용자 중심 스마트홈 환경을 위한 2단계 그룹 형성 기법'이다.

배푸름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두 번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 그 과정에서 공부와 연구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상 밖을 향한 도전을 통해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한 암시를 얻었다.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 도전, 두 해 모두 수상의 영광을 안은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미경 학생. 거의 2년이란 시간을 이 대회에 투자한 그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로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었다. 도전을 통한 성취, 그의 열정을 엿본다.

글 정은경(편집실)

꾸준한 도전으로 건져 올린 미래

이미경 __ 신소재공학과 4학년 학생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2년 연속 입상

“글쎄요, 남들은 2년 연속 입상을 해서 좋겠다고 하지만 올해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올해는 우수상 이상을 노리고 출전한 거였거든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미경 학생의 입상 소감에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2012년에는 그저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던 터라 입상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뻐지만 2013년에는 보다 높은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회의 경쟁률을 생각하면 2년 연속 입상이란 성적은 아쉬움으로 끝날 것만은 아니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에 강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문제로 출제하고, 대학(원)생이 해답을 제시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대회는 ▲국내외 특허를 분석해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 획득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전략 수립 부문과 ▲가상의 출원서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해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 조사 부문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2013년의 경우 선행기술 조사 부문에는 3232명이, 특허전략 수립 부문에는 1410명이 참가해 각 부문에서 88명만이 수상을 했다. 이미경 학생이 참가한 특허전략수립 부문의 경우 약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

가슴 떨리는 성취감, 도전의 진정한 맛!

“전공 공부를 하면서 뭔가 2% 부족함을 느꼈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쉬웠던 거죠. 그러던 중 이 대회를 알게 됐고, 마침 출제 문제 중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전자 재료 쪽 문제가 있는 걸 알았죠. 입상은 꿈도 못 꾸고 그저 배우는 데 의의를 두자는 생각에 같은 과 친구랑 팀을 이뤄 출전을 했죠.”

2012년 첫 출전, 그가 도전한 문제는 ‘유기박막태양전지 관련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출원 동향 분석과 소재별 주요 경쟁사 특허 도출’이었다. 몇날 며칠 사전조사를 하고 일주일 넘게 날밤을 새우며 논문을 써서 제출했고, 1차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2차 시험은 발표 심사였다. 논문을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PPT 자료를 만들고 발표 연습을 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심사에 임했다. 그 결과 장려상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맞은 성취감과 기쁨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릴 정도라고.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회가 아니다. 매년 3월 중에 대회 공고가 나고 4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행기술 조사 부문의 경우 5월 말에, 특허전략 수립 부문의 경우 8월 말에 답안을 제출해서 11월 말이 되어야 시상식을 갖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학기는 꼬박 매달려야 한다. 특히 이미경 학생이 출전한 특허전략 수립 부문의 경우, 1차 서면심사 통과자는 10월 중에 있는 발표 심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거의 1년을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참가 결정이 쉽지 않고, 일단 참가를 결정하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이 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경 학생은 2013년 다시 한 번 이 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두 번째 도전,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연다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결과가 좋으면 그 성취감은 정말 대단해요. 더구나 작년에 장려상을 타보니 이번엔 우수상을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과 기대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대학원 선배와 팀을 꾸렸다. 이미경 학생 팀이 택한 주제는 ‘일본 업체들의 TV 제품에 적용된 산화물 반도체 특허맵’에 대한 정량 및 정성 분석이었다. 2012년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 높은 성적을 노린 만큼 팀 구성도 수준을 높였다. 결과는 이번에도 장려상이었다. 이유는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경쟁률 탓이었다. 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가 팀의 숫자가 부쩍 늘었고, 참가 논문들의 질도 한결 높아진 것이다.

“아쉽죠. 하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큼니다. 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됐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졸업을 코앞에 둔 4학년이지만 이미경 학생은 오늘도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진학이 결정 난 터라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곧 모교를 떠날 그는 후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도전하길 기대한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도전해 볼 만한 외부 대회가 많습니다. 이런 대회에 참가해 보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도 보입니다. 우리 후배들이 무릎 안에 머물지 말고 세상 밖으로 도전장을 던졌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의 바람입니다.”

수학, 그 매혹적인 학문을 말하다



2013년 10월 대한수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을 나란히 수상한 두 교수가 있다. 논문상을 받은 배형욱 금융공학과 교수와 상산 젊은수학자상을 받은 최수영 수학과 교수가 그들이다. 배형욱 교수가 수학자로서 금융공학과에서 파생상품 등을 연구하는 응용수학자라면, 최수영 교수는 위상수학을 연구하는 순수수학자다. 막연히 멀고 어렵기 만한 수학이란 학문, 그 숨겨진 매력을 두 수학자들의 대화를 통해 들어본다.

대담 배형욱, 최수영 교수
진행 이 슌(홍보실)
정리 편집실

Math is the world itself.

● 수학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분에게 수학이란 무엇인가요?

배형욱 중·고교에서의 수학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기보다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육 위주이다 보니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의 경우 고등학교 때 책상에 앉으면 수학책부터 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기에 가장 좋았거든요. 수학의 매력이란 그런 겁니다. 논리와 체계를 그 어떤 것보다 간명하고 정교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최수영 맞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성의 극한'을 경험할 수 있지요. 수학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6차원, 8차원, 100차원을 상상하고 연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허락하는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분류를 하는 작업입니다. 수학은 또 그 자체로 완벽한 학문이에요. 어떤 공리 체계 안에서는 참과 거짓이 명백해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수 없지만 수학은 명백한 참이 존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이 반드시 있죠. 그렇다보니 대학원생이든 세계적인 석학이든 일정한 공리 체계를 따라가면 똑같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제 자체가 참인가 거짓인가가 중요하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배경과 권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배형욱 저는 수학이란 학문에는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현상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현상에는 수학적 논리가 개입되어 있지요. 수학이란 도구를 이용하면 설명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차르트의 음악에도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하잖아요?

Math is communication.

● 수학자라고 하면 골방에 들어앉아 난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모

습이 연상되는데요, 수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 자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수영 교육과정으로서의 수학만을 본다면 문제 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문으로 수학을 본다면 그러한 생각은 아주 큰 오해지요. 연구자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결 과정에는 다른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다른 방식,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학문으로서의 수학입니다.

배형욱 '페르마의 정리(Fermat Last Theorem)'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17세기에 프랑스 수학자 페르마가 만든 방정식인데, 무려 35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 해를 찾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한 단 계씩 풀어나가 마침내 1990년대 중반 와일즈 교수가 그 증명을 완성했다고 하죠. 당장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주고받아야 완성되는 학문, 그것이 수학이지요.

최수영 그런 면에서 '수학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수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학자들과의 교류인데, 이 역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수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학문이 수학입니다.

● '수학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최수영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령을 익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수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접한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은 많았어요.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전장을 던지는 학생의 수는 적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신감



최수영 수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박사
 연구 분야: 위상수학
 2013년 대학수학회 상산 젊은수학자상 수상

배형옥 금융공학과 교수

포항공대 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박사
 연구 분야: 편미분 방정식, 유체역학, 파생상품 가격결정
 2013년 대학수학회 논문상 수상



을 가지고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형옥 저는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학부에서 보다 많이 수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각자의 적성에 맞춰서 다양한 학과로 가는 겁니다. 이공계 학문에서 수학은 하나의 언어와 같아요. 깊은 학문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수학자로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공계 학문을 잘 하기 위해 수학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도 쓰임이 많은 학문이 또 있을까요?

최수영 배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게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수학과 내의 전공과목 하나쯤은 들어보라는 거예요. 개설된 과목 중에 재미있어 보이는 수업을 들어두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를 배우듯, 이공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수학이 어렵다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연습만이 왕도다’. 물론 고등학교 때처럼 단순 문제 풀기를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나왔고, 여기서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학은 논리거든요. 문제 풀이보다는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 의외로 쉬운 게 수학이란 학문인 거죠.

배형옥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 전공과목을 들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테니까 저는 기초수학이라도 필수과목으로 했으면 합니다. 수학 I, II와 미적분, 통계 정도라도 학생들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수학을 하는 사람이 금융공학을 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금융공학 하는 사람이 수학을 하려면 어렵지요. 그래서 수학을 배워두라는 겁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책이나 글을 백번 읽으면 그 뜻을 저절로 깨우쳐 알게 됨)’이란 말이 있는데, 수학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역함수 정리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걸친 정리를 읽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13번째쯤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렵더라도 끈기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한 단계 점프한 것이 느껴지면서 ‘아, 공부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희열을 맛보게 되거든요.

Math is the basic.

● 요즘 ‘융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문 간 융합에 있어서의 수학의 역할, 그리고 수학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아까 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은 이공계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수학을 모르고 다른 학문을 한다면 끼워 맞추기 식 밖에 될 수가 없지요. 실제 기업들에서도 수학과 졸업생을 선호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의 수학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다른 분야 올림픽아드 수상 고교생들은 해당 분야보다는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학 올림픽아드 출신들은 대부분 수학과로 진학하는 게 요즘 현상입니다.

배형옥 다른 분야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부 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며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다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수학 전공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더군요. 공학 계열 전공자를 직원으로 뽑으면 당장 활용할 수 있어 좋지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들에 적응하는 것은 수학 전공자가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최수영 수학은 인류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한 뒤 시작한 첫 학문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한국 수학계의 미래도 밝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입시 수학에만 한정되던 관심이 세계적인 수학자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박사를 해도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배형옥 수학만큼 다양한 학문의 기초가 되고, 응용되는 학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저만 해도 수학자인데도 금융공학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관심을 모으는 비트코인이니 금융 파생상품이니 하는 것들의 원리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할 때, 수학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학의 어떤 분야는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떤 분야는 새롭게 등장할 겁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지요.

최수영 동감입니다. 위상수학(현대 수학의 한 분야로 대상을 임의의 추상공간으로 확대해 위상적 방법을 병용해 다루는 수학)의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위상수학의 위치는 위상수학자들이 필즈상(Field's Medal,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적 위상을 가진 상)을 반 이상 가져갈 정도로 대세를 이루었죠. 그 후 점점 위상수학 연구자들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위상수학 내의 여러 분과, 그리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조명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잠시 성장을 멈추다가 진화하는 거죠.

배형옥 한국 수학계의 발전은 사실상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죠. 그 전에는 사실상 수학 연구를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저만 해도 강의를 맡게 된 초반에는 한 학기에 5과목을 강의하면서 연구를 해야 했어요. 해외 학회에서 만난 다른 나라 연구자가 저더러 강의를 몇 개 하냐고 묻기에 5개 한다고 했더니, 저더러 천재가 틀림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연구까지 할 수 있겠냐는 뜻이었

죠. 1990년대 초에는 한 해에 나오는 수학 관련 논문이 열 몇 편에 그쳤지만 지금은 350편 이상이 쏟아지고 있지요.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수학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연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고 싶어요. 학문에 있어 전성기는 33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문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봤으면 좋겠어요.

Ajou univ. news

_Medical Center

아주대학교의료원, '수원아토피치유센터'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최근 수원시로부터 '수원아토피치유센터'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수원아토피치유센터는 장안구 조원동 9-2번지 일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광고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에 사업을 시작해 2014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친환경 교육장, 세미나실, 강의실, 검사실, 상담·진료실, 체육활동장, 숙박시설과 유기농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센터가 개관되면 환경성 질

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진료를 연계하여 아토피성 질환 유병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아토피치유센터장으로 예정된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는 "수원아토피치유센터가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원 시민의 유병률과 중증도를 낮추고 재발이나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로봇수술 5년여 만에 2000건 달성

아주대학교병원이 로봇 수술 2000건을 돌파하고, 12월19일 '다빈치 로봇 수술 2000건 기념식'을 가졌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8년 10월20일 로봇수술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100건, 3년여 만에 1000건, 5년여 만인 2013년 12월12일 2000건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일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가장 많은 수술을 하는 성적이며 현재 매년 500건 이상의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로봇 수술은 담도질환과 갑상선질환 수술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지 않는 담낭질환과 위암의 수술

건수가 많고 이 분야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과 후두암에서도 로봇수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유희석 병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이 단일 로봇 시스템으로 5년 만에 2000건을 달성한 것은 우리 병원의 높은 치료수준을 보여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1000건 달성 이후 1년 9개월 만에 2000건을 달성한 의료진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늘어나는 로봇수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로봇 수술기를 한 대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장기기증 유공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장기기증 유공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994년 개원 이후 경기남부 지

역 협력병원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뇌사 장기기증 홍보와 원내외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힘입어 200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늘고 있고, 뇌사자 발굴에서 장기기증까지 연결된 건수가 2011년 21건, 2012년 36건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신장 이식 5백례 돌파

아주대학교병원이 최근 신장 이식 5백례를 돌파했다.

장기기증팀(외과 오창권, 이수형, 비뇨기과 김세중, 김선일, 신장내과 김홍수, 신규태, 박인휘 교수)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병원은 1995년 6월29일부터 2013년 5월2일까지 18여년에 걸쳐 500명을 대상으로 신장 이식을 시행했으며 신장 이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5.5%, 10년 생존율은 92%, 10년 동안 이식 신장이 기능할 생존율은 82%를 유지하며 타 병원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신·체장 동시이식, 자가이식, B형간염

보균자 이식, 교차반응 양성 환자 이식 등 고난도의 술기가 요구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주대 병원의 높은 의료수준을 보여준다.

한편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팀은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앞으로 ▲뇌사자의 장기 기증 설득 및 능동적 구득과 심장 사 이후 장기기증 ▲신장 교환 이식 ▲순수 신장 기증자 발굴 ▲교차반응 양성 환자의 혈장 교환술 후 신장이식 ▲이식 대기자에 대한 지원 ▲잠재적 이식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새로운 면역 억제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여러 병원과 보건의료 협력 맺어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보건의료 협력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서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 아스타나 제1시립병원, 공화국병원, 대통령병원과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인적 교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및 과학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연구 ▲학술 교류 ▲상호 과학 연구 프로젝트 공유 ▲의료관광 협력 등이다.

특히 서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은 지리적 단점과 열

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의료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악튜빈스크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의미가 매우 크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의료진의 상당수가 서카자흐스탄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카자흐스탄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하여 해외 진출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이번 협약으로 카자흐스탄 의료 수요를 선점하고 향후 보건의료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첫 유럽종양학회 '통합종양센터와 완화 케어' 인증 획득

아주대학교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에서 '통합종양센터와 완화 케어' 인증을 받았다.

유럽종양학회(ESMO)는 유럽을 대표하는 종양학회로, 전 세계 통합종양센터를 대상으로 2003년에 '통합종양센터와 완화 케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종양센터란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완화 케어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럽종양학회(ESMO) 인증을 받은 기관은 완화 환자와 관련하여 ▲암 치료 이외의 다양한 증상에 대하여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병원 ▲신속한 응급 완

화진료 시스템과 협진체계가 잘 갖추어진 병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병원 ▲침을 위한 공간과 통합의학센터가 설치된 병원 ▲암센터 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 ▲완화의료 전문가가 구성돼 있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병원임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하여 37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총 36개국 161개 병원이 유럽종양학회 인증을 받았다. 인증병원은 대부분 유럽 국가이며 아시아에는 홍콩 2곳, 중국 1곳, 싱가포르 1곳이 포함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ESMO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Ajou univ. news

_그외 소식

축구부, 2013 대학축구 U리그에서 무패 우승



아주대학교 축구부가 2013 대학축구 U리그에서 리그 무패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3년 3월 개막한 '2013 대학축구 U리그'에서 12승4무를 기록, 중부 4권역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

전국에서 총 76개 팀이 참가한 2013 U리그는 총 8개 권역(중부 4권역, 호남, 영남 각 2권역)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다. 각 권역에는 9~10개 팀이 속해 있고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권역별 라운드를 마치면 각 권역의 3~4위권 팀까지 왕중왕전(대학 축구 챔피언십) 진출권을 얻는 방식이다.

권역별 대회 이후 각 권역 상위팀들이 겨룬 챔피언십에서 아주대학교 축구부는 8위를 차지했다. 우승은 영남대학교에 돌아갔다.

손태식 교수팀, 산업보안 논문대회 은상

정보컴퓨터공학과 손태식 교수와 대학원생 2명이 한국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최한 '2013 산업보안논문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난 10월24일 서울 테헤란로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2013 산업보안 국제세미나'를 열고 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1차 서류 심사-2차 발표 심사

를 거쳐 뽑힌 최종 수상작은 총 20편이다. 심사위원은 학계 및 보안업체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손태식 교수와 박용민(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이석철(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파일 시그니처 기반의 산업 기밀 데이터 필터링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졌다.

중국 쓰보중학에 '아주대학교 유학반' 개소



아주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주대학교 유학반'이 중국 산둥성의 쓰보중학에 9월26일 개소했다. 중국의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번 유학반 개소는 지난 4월 양 교가 체결한 '유학협력협정'에 따른 것으로 특정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유학반 개소는 중국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쓰보중학은 쓰보 시의 중점육성학교로 3년 전 설립되었으며 45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쓰보중학 유학반은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1년간 집중한국어, 영어, 수학 외 기타 교과목을 공부한 뒤 아주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된다. 유학반은 이번 학기 7명으로 시작해 2014년 2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관 대외협력처장과 쓰보중학 왕지기 교장 등 양 교 관계자들과 유학반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관 대외협력처장은 축사에서 "유학반은 향후 한·중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 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육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향후 양 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난징이공대학과 복수학위 협정

아주대학교가 중국 난징이공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아주대학교는 앞으로 난징이공대학 학생들을 복수학위생으로 유치하고, 아주대학교 학생들 역시 난징이공대학에서 수학한 뒤 양 교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수학위란 아주대학교에서 일정 조건의 학점을 충족하고(졸업학점의 1/2 이상) 상대 학교에서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양 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아주대학교 국제협력팀은 그동안 미국(스토니브룩대학, 일리노이공과대학)과 호주(선샤인코스트대학) 자매학교를 위주로 운영되던 복수학위제도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다.

난징이공대학은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에 위치해 있으며 아주대학교와는 1995년 자매대학 협약을 맺었다. 화학공학부, 전자공학부, 인문학부를 포함한 총 12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학은 이공계에서 특히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다.

한편 안재환 총장은 난징이공대학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이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약대, 베트남 2개 대학과 MOU

약학대학이 베트남 의약대학(The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호치민시티 국제대학(Ho Chi Minh City International University, HCMIU)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약학대학 이범진 학장은 지난 12월6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두 대학을 방문해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두 대학과 아주대학교는 ▲연구 및 교원의 교류 확대 ▲교환학생 활성화 ▲국제적 학술행사에서의 협력 등에 있어 활발히 교류하기로 했다.

베트남 의약대학은 1947년 설립되어 기초과학, 의학, 약학, 공공의료 등 7개의 학부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부속 병원도 두고 있다. HCMIU는 호치민 베트남 국립대학(Vietnam National University) 소속으로 2003년 연구 중심 대학의 하나로 설립됐다.

국어국문학과 창설 30주년 기념행사

국어국문학과 창설 30주년 행사가 10월9일 한글날 다산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경훈 인문대학장과 문해원 국어국문학과장을 비롯해 김상대, 김성렬, 조창환 명예교수와 교수, 동문, 재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김상대, 김성렬, 조창환 명예교수와 고 천병식 명예교수 부인은 국어국문학과 초창기부터 발전 과정에 따른 대한 회고의 시간을 가졌다. 국어국문학과 동문회는 그동안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참석한 명예교수들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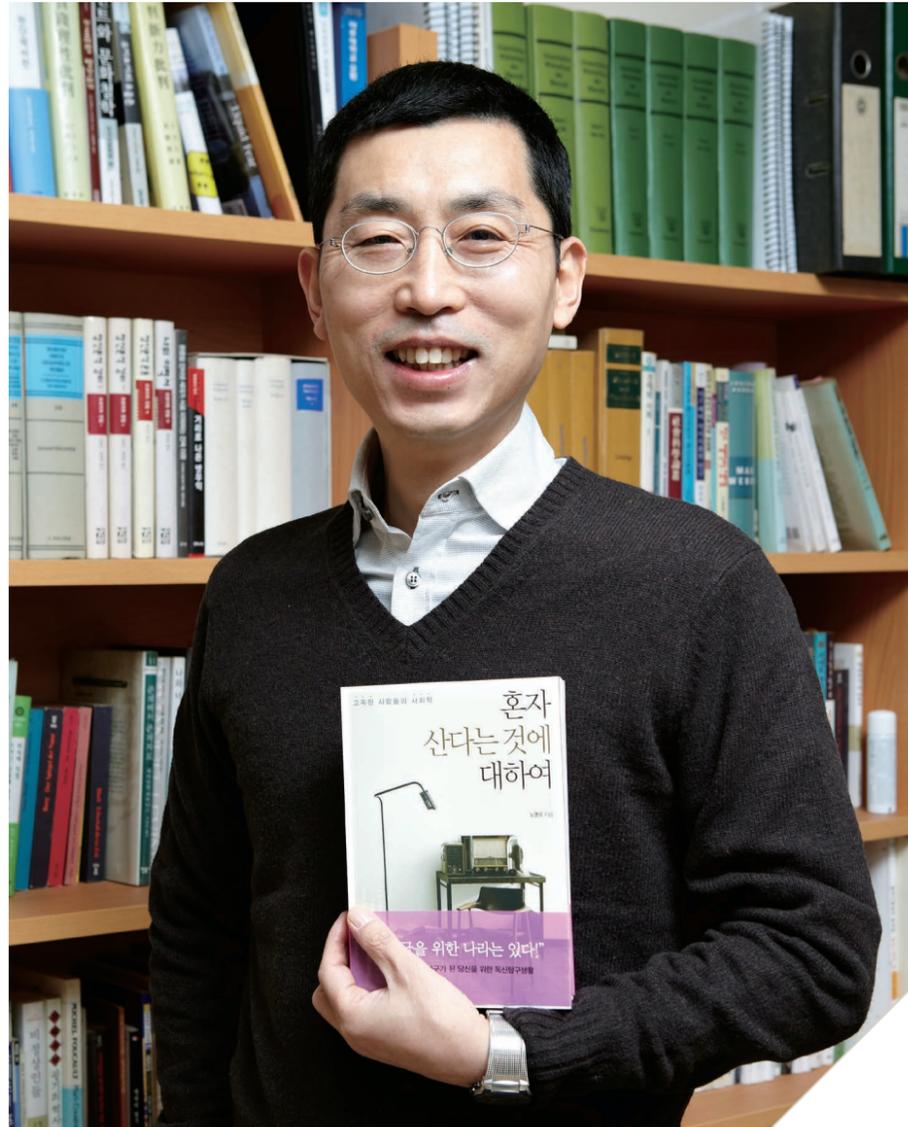
국어국문학과 윤환(83) 동문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해 국어국문학과 발전에 써달라며 3000만원의 발전기금 약정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국어국문학과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는 국어국문학과를 비롯해 동문회, 학생회 등이 연합으로 준비한 행사다. 한글날 행사와 병행된 30주년 기념행사는 말뚝이 공연과 동문회 총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상대 명예교수도 "창설 기념행사에 초대해줘 고맙다"며 "학과가 발전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어 행복했고, 앞으로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당하게 현실에 맞서는 용기

지난 10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란 책을 낸 노명우 교수.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굳어가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 그의 책은 신선하고 흥미롭다. 사회학자로서 지금 여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가 힘든 오늘을 사는 20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다.

정은경(편집실)



노명우 __ 사회학과 교수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하늘은 잔뜩 내려 앉아 있었고, 약속시간에 맞춰 찾아간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10분 정도 닫힌 연구실 문 앞에서 서성였다. “아이고, 이거 제가 좀 늦었군요. 눈이 올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허둥지둥 나타난 그는 미안함 가득한 손길로 교수연구실의 문을 열었다.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40대 후반인 그는, 그러나 아직도 청년의 기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싱글’이다. ‘싱글’인 그가 지난 10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간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만나고자 한 것도 바로 그 책 때문이다.

지금 여기, 보통사람들에서 비전 찾기

연구실로 들어서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가 한쪽에 자리 잡은 몇 권의 니체였다. “니체를 좋아하시나봐요?”라는 질문에 그는 “그의 스타일을 좋아하죠”라며 빙그레 웃었다. 책도 위에 놓인 안정적인 삶을 거부하고, 기존 철학의 허위를 깨버린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가 ‘혼자’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하하, 여태 혼자인 것은 무슨 주의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어찌다 보니 혹 세월이 갔고, 정신 차려 보니 ‘혼자’였던 거죠.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니체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책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로 옮겨갔다. 책이 나온 뒤 노명우 교수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 대부분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최근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1인 가구'의 발생 원인이나 그의 해법에 대한 것들로 채워졌다. 물론 늘어나는 '1인 가구' 혹은 '솔로 족'들이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 그런 독신들에 대한 판타지(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인 '싱글리즘'의 모순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등 책에서 피력하고 있는 그의 사회학적 분석이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의 책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패스'하기로 하자. 대신 사회학자 노명우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시 니체로 돌아간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모순을 깨부수는 것, 궤도 위의 안정적인 삶보다는 무지개 너머에 있을 '무엇'에 대한 관심이 니체에게 철학이란 문제로 귀결되었다면, 나에게 사회학적 문제로 귀결되었던 거죠. 나는 사회학을 통해 무지개 너머의 '무엇'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니체 스타일'이란 말을 쓰는 것이구요.”

'무지개 너머의 무엇'에 이르기 위해 그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실 안의 형이상학적 주제가 아니다. 그는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부터 사회학이 출발한다고 생



각하고, 자신의 연구주제 또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트위터와 유명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그의 최근 논문들 '유명인의 인기트위터와 셀러브리티 문화'(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2.12), '사이버공간 상호작용을 통한 자량의 의미형상: 다시 인사의 지랑거리 갤러리에 대한 사례 연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2.09)는 그의 이 같은 관심사를 대변한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의 집필 동기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가을, 우연한 계기로 '1인 가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보니 저 자신도 '1인 가구'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분명히 사회적인 변화인데도 말이예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해야 하는 연구구나, 하게 된 거죠.”

최근 노명우 교수가 천착하고 있는 주제는 'IMF 이후 한국인들의 멘탈 구조'다.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멘탈 구조와 그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제자들이기도 한, 요즘 20대들의 현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즘을 대한민국 대학생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괴롭지요. 무한경쟁과 고착화되는 부의 대물림 등의 현실을 부정할 순 없어요. 더구나 사교육 세대들이라 보니 혼자 해결하는 뒷심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해요. 위안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힘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요.”

학자로서, 스승으로서 요즘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절절했다. 노명우 교수와의 인터뷰는 두 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다. 니체에서 그의 책으로, 사회학자로서의 관심사로, 그리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까지, 화제 또한 중형무진이었지만 차근차근 풀어내는 그의 말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인터뷰를 끝내고 창밖을 보았을 때, 아주대학교 캠퍼스는 어느새 한 장의 엽서처럼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눔을 일상으로,
도전을 성공으로

'나눔은 일상이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생색을 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김정두 동문의 나눔 철학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장학금 기부를 약속했다는 김정두 동문(불문 84)을 만났다.

김혜진(편집실)

김정두(불문 84)_ 동문

그의 첫 인상은 '소탈'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자 하니 '직원들 일하는데 미안하고 쑥스러우니 안 했으면 좋겠다'며 손사래를 친다.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프레시원강남 사옥, 검은 점퍼 차림으로 취재진을 맞은 김정두 동문(프레시원강남대표이사)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저 후배들 중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배로서 작은 힘을 보탤 것'이라며 자신의 기부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나눔이 학과와 학교 발전의 씨앗이 되길

아주대학교 불문과 84학번인 김정두 동문은 2013년 5월 아주대학교와 1억원의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 2013년과 2014년, 두 해 동안은 김 동문이 졸업한 불문과 학생들에게 학기당 500만원씩을, 그 이후에는 대학 측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하기로 했다.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불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자고 한 것은 출신 과이기도 한 불문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주대학교가 1973년 한국-프랑스 문화 협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인 만큼 불문과는 전통과 역사가 남다른 과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침체기랄까, 슬럼프랄까 그런 것에 빠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민하는 후배들을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 작은 나눔이 씨앗이 되어 학과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공과 무관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을 보여주는 김정두 동문의 말이다.

김정두 동문에게 기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그에게 기부는 '일상'이다. 동네의 경로당부터 노숙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그는 인연이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돈을 내는 것은 그리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지요. 제가 후원하는 기관들에 가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중에는 봉사시간이 1만 시간이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박수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돈 나누긴 쉽지만 시간과 노력 나누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전하라, 긴 안목을 갖고 진취적으로

“창고에 쌀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거나 벌레가 생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면 썩죠. 써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왕 쓰는 돈, 좀 의미 있게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김정두 동문의 돈에 대한 철학이다. 그가 경영하는 '프레시원강남'은 식자재 납품업체다. 대학 졸업과 함께 형님이 하시던 식자재 납품업에 뛰어들어 23년,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한 세월이었다. 그리고 그 23년의 끝에 지금의 '프레시원강남'이 있다. 프레시원은 CJ계열의 식자재 납품업체로 강남, 고양, 일산 등 9개 지역의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7월 설립된 프레시원강남은 9개 독립 법인 중 가장 큰 매출을 자랑한다. 이 같은 성공의 비결은 그만의 돈에 대한 철학 덕분이 아닐까.

프레시원강남이 출범하면서 회사도 이사를 했다. 종전 서울시 송파구에서 현재의 용인시 수지구로. 사실 식자재 납품업체의 이전은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창고와 물류시스템 등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업을 하는 동안 대여섯 번의 이전을 했다고 한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한 곳이나 한 가지 일에만 안주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크지를 못해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죠. 세계 회사 이전은 곧 도전이었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도전, 그 도전을 통해 오늘이 탄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말을 아끼던 김정두 동문은 속 깊은 곳에 '도전 정신'이란 저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이기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며 큰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취적 기상이 없어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학 4년 무사히 마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는 듯 싶더라고요. 그 미래를 위해 오늘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4~5년 후의 안정만을 생각하다 보면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게 김정두 동문의 생각이다. 그래서 아주인들만이라도 보다 긴 안목으로, 큰 그림의 틀을 갖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현실을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리고 그가 보던 작은 정성이 후배들의 도전에 힘을 보태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 또한 자신의 성공을 후배들과 나눌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길, 김정두 동문은 소원한다.

Ajou univ. news _Donation

한마음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11월9일 아주대학교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2013학년도 한마음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한마음장학회는 2013학년도 1학기에 25명, 2학기에 2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금액으로는 총 52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한마음 장학생들과 한마음장학회의 박찬복 부동산최고위 동문회장, 김춘택 석사과정 원우회장, 박흥식 경기발

전최고위 동문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재환 총장과 유재석 대학원장, 임재익 국제대학원장, 김흥식 공공정책대학원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한마음장학회는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장학회로 2011학년도 출범해 현재까지 총 1억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3년 2학기 아경장학증서 수여식



11월13일 아주대학교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2007년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인문대학 이지원 학생, 의과대학 이준호 학생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아경최고장학생 10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고 아경포럼 장학생, 일반장학생 2명씩에게는 각각 25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박종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박종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뿐 아니라 한재수 아경장학재단 명예이사장, 김형균 아

경장학재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안재환 총장과 조재형 학생처장, 박호환 경영대학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경장학재단은 대학원과 학부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인문대학 학술세미나 지원, 아주대학교병원 연구 지원, 교육 여건 개선 등에도 힘쓰고 있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장학생들은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보여주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용 약사 장학금 약정식 · 감사패 전달식



10월14일 오후 아주대 울곡관 총장실에서 김기호 동문을 비롯한 기부자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재료공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2400만원을 약정한 김기호 동문(미래클전자 대표, 재료 84)과 경영대학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약정한 홍성길 동문(현대차 소장, 경영 83)이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했다. 각각 1200만원과 1000만원을 약정한 김병관 사회학과 교수와 정말희 약학대학 교학팀 과장도 함께 자리했다.

안재환 총장은 기부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같은 날 울곡관 제회의실에서 약학대학 발전기금 약정식도 열렸다. 정희용 도병원약국 대표 약사가 약대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 안재환 총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약대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약정하고 500만원을 납입한 이범진 약대 학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1-1-1 캠페인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013학년도 1-1-1 캠페인 장학금 수여식이 10월29일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1-1-1 캠페인은 1명이 1달에 1만원씩 정성을 모아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자는 뜻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모금활동이다. 이번에 수여된 장학금은 약 2억원, 수여 학생 수도 163명으로 금액과 규모 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장학금 수여식은 학과별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과별 장학생 수는 1-1-1 캠페인을 통한 학과별 모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공과대학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대학은 3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학생들은 직전 학기 평점이 3.5 이상이거나 학과 석차 10% 이내의 학

생들과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각 학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박만규 불어불문학과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장학생들이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동시에 사회에 나가면 본인이 선배들에게 받았듯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채의식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환 총장도 "2009년부터 시작한 1-1-1 캠페인 참여자가 현재 2500여명까지 늘었다. 앞으로 1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각 학과에서도 참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기부자 모두에게 감사하고, 장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전했다.



'83학번 모교 방문의 날' 행사 열려

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83학번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11월2일 오후 4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83학번 100여명과 10여명의 은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83학번 모교 방문 행사 추진위원회(회장 이강기)와 대학발전본부가 주관하고 총동문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부터 홍보대사 아우라(AURA)의 캠퍼스투어와 포토존 촬영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공식행사에서는 학교 발전 상황에 대해 김민구 기획처장의 발표와 안재환 총장의 환영사, 최종욱 총동문회장 축사(정성화 수석부회장 대독) 그리고 1-1-1 캠페인 모금활동에 대한 김윤기 대학발전본

부장의 발표 등이 있었다.

이강기 83학번 모교 방문의 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는 83학번을 대표해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2억원의 1-1-1 캠페인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이후 축하공연, 은사 선물 증정과 함께 학과별 사진 촬영과 만찬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모교 방문의 날 행사는 지난 2003년, 아주대 1회 입학생인 73학번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 맞는 행사다. 이 행사는 그동안 10여년 넘게 지속되면서 동문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동문들과 학교가 유대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해 왔다.



GS칼텍스와 아주사랑 나눔카드 협약식

아주대학교와 GS칼텍스의 아주사랑 나눔카드(할인 및 포인트 카드 적립) 협약식이 12월18일 울곡관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안재환 총장, 유재석 대학원장, 박영동 교무처장, 조재형 학생처장, 한호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고, GS칼텍스 측에서는 김광수 부사장, 정원현 전무, 민형준 상무 등이 참석했다.

아주사랑 나눔카드 사용자는 기존의 신용카드 할인에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사용실적에 따라 GS칼텍스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발전본부는 아주사랑 나눔카드를 교직원, 동문,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2년 후 3000명까지 회원을 늘릴 계획이다.

안재환 총장은 "오늘 GS칼텍스와 맺은 협약은 상호 윈윈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jou univ. news

_Donation List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 (2013.10 ~ 2013.12)

가진희 / 김동길 / 강경림 / 강미애 / 강석배 / 강승현 / 강엽 / 강영숙 / 강영실 / 강은경 / 강태규 / 강혁 / 강호철 / 강홍민 / 강희영 / 곽명숙 / 곽우실 / 곽창식
 구건희 / 구준모 / 국경훈 / 권경수 / 권명희 / 권소라 / 권오일 / 권오훈 / 권준희 / 권지은 / 권진상 / 권춘련 / 기은정 / 길경수 / 김근식 / 김경민 / 김경서 / 김경진
 김광민 / 김광은 / 김광윤 / 김근희 / 김기석 / 김기운 / 김기현 / 김남숙 / 김대중 / 김대희 / 김도영 / 김동문 / 김동일 / 김두화 / 김라미 / 김명성 / 김문석 / 김미란
 김민구 / 김민수 / 김민정 / 김범택 / 김병곤 / 김병관 / 김병주 / 김보경 / 김봉준 / 김상준 / 김서용 / 김선영 / 김선옥 / 김선일 / 김성렬 / 김성수 / 김성인 / 김성주
 김성환 / 김세중 / 김소라 / 김소희 / 김수경 / 김숙영 / 김순희 / 김슬기 / 김승권 / 김승범 / 김승택 / 김연호 / 김영래 / 김영무 / 김영배 / 김영수 / 김영숙 / 김영아
 김영제 / 김영희 / 김원기 / 김용성 / 김용태 / 김옥환 / 김윤천 / 김유권 / 김유선 / 김유찬 / 김윤기 / 김은미 / 김은영 / 김의향 / 김민선 / 김장희 / 김재근 / 김재호
 김중엽 / 김주연 / 김중권 / 김지나 / 김지연 / 김지윤 / 김지희 / 김진 / 김진옥 / 김진홍 / 김찬수 / 김철호 / 김춘자 / 김태규 / 김태동 / 김태환 / 김태희 / 김태희
 김현수 / 김현 / 김현실 / 김현아 / 김현준 / 김현진 / 김형준 / 김혜림 / 김혜선 / 김혜진 / 김호빈 / 김환영 / 김효정 / 김홍수 / 김홍식 / 김희정 / 니은우 / 나창용
 나충주 / 남궁윤 / 남동호 / 남석현 / 노재성 / 도수일 / 라희정 / 류승우 / 류인복 / 무기명 / 문병철 / 문봉기 / 문소영 / 문승경 / 문은표 / 문주영 / 문현숙
 민경복 / 민병현 / 민영기 / 민철기 / 박경미 / 박경배 / 박경주 / 박관식 / 박규민 / 박기현 / 박동하 / 박만규 / 박명분 / 박명준 / 박명철 / 박문성 / 박미미 / 박미현
 박범식 / 박병남 / 박보연 / 박봉기 / 박상규 / 박상희 / 박설훈 / 박선 / 박성진 / 박소형 / 박수진 / 박승진 / 박아람 / 박영동 / 박은영 / 박은정 / 박인숙 / 박일분
 박일중 / 박재범 / 박재영 / 박정옥 / 박정은 / 박주현 / 박준성 / 박지원 / 박지환 / 박 진 / 박진희 / 박찬분 / 박찬숙 / 박춘자 / 박태준 / 박한나 / 박해식 / 박현이
 박형란 / 박효숙 / 박홍식 / 배기수 / 배성복 / 배진숙 / 백금여 / 백승흠 / 백은주 / 백지흠 / 변지연 / 북미숙 / 서미애 / 서민덕 / 서성일 / 서원희 / 서은지 / 서창희
 서해영 / 석용수 / 선주성 / 선준규 / 소외영 / 소지은 / 손성향 / 손순이 / 송미숙 / 송승희 / 송웅진 / 송용호 / 송은희 / 송중식 / 송주은 / 송지훈 / 송충숙 / 송현호
 신경철 / 신규태 / 신승수 / 신영관 / 신유정 / 신윤미 / 신준한 / 신형섭 / 신호준 / 심인석 / 심현민 / 안대근 / 안미선 / 안영실 / 안영환 / 안재홍 / 안현남 / 안현수
 양승철 / 양정인 / 양형모 / 양홍석 / 양희곤 / 예영민 / 오말지 / 오수연 / 오영택 / 오은애 / 왕재선 / 왕희정 / 우현구 / 원예연 / 원제환 / 위영철 / 위지영 / 유문숙
 유미애 / 유상근 / 유영숙 / 유재석 / 유재호 / 유지영 / 유태일 / 유혜만 / 유혜라 / 유희석 / 윤계순 / 윤명호 / 윤성중 / 유수한 / 유승현 / 윤정훈 / 이기희 / 이강기
 이강준 / 이경중 / 이경진 / 이관우 / 이광 / 이광필 / 이교범 / 이규성 / 이기범 / 이기원 / 이기재 / 이다근 / 이도영 / 이동주 / 이명애 / 이명필 / 이명희 / 이문환
 이미경 / 이미숙 / 이미연 / 이민선 / 이민용 / 이민정 / 이상엽 / 이상현 / 이상화 / 이선미 / 이성식 / 이수환 / 이수희 / 이숙영 / 이숙향 / 이순영 / 이순정 / 이승현
 이승희 / 이신혜 / 이연정 / 이연희 / 이영돈 / 이영민 / 이영옥 / 이용희 / 이우교 / 이윤환 / 이은소 / 이은주 / 이은현 / 이일신 / 이재욱 / 이재호 / 이재희 / 이종수
 이종연 / 이종찬 / 이종화 / 이주봉 / 이주승 / 이주훈 / 이지현 / 이진식 / 이진옥 / 이철주 / 이평애 / 이해리 / 이해숙 / 이현기 / 이현수 / 이현실 / 이현우 / 이현주
 이현진 / 이해원 / 이화영 / 이항우 / 이효정 / 인정숙 / 임기순 / 임기영 / 임동하 / 임병수 / 임선교 / 임승관 / 임신영 / 임영애 / 임용택 / 임인경 / 임종우 / 임지영
 임채원 / 임현이 / 임홍석 / 장기홍 / 장길수 / 장대현 / 장도숙 / 장석준 / 장선영 / 장수현 / 장영미 / 장영수 / 장영주 / 장청길 / 장혜영 / 전갑수 / 전기홍 / 전도만
 전미선 / 전병홍 / 전상천 / 전세영 / 전창훈 / 전철구 / 정규림 / 정미옥 / 정민석 / 정서진 / 정선용 / 정선희 / 정성현 / 정수용 / 정승아 / 정연호 / 정영근 / 정영기
 정영호 / 정운석 / 정재원 / 정정화 / 정준화 / 정찬영 / 정해근 / 정형식 / 정형욱 / 정홍락 / 정희진 / 제갈훈 / 조경숙 / 조미선 / 조선미 / 조선란 / 조성순 / 조성원
 조용관 / 조용환 / 조은숙 / 조은영 / 조은혜 / 조재현 / 조재호 / 조한범 / 조혜성 / 조혜정 / 조홍정 / 주인수 / 주일로 / 진성호 / 진호성 / 차혜경 / 채수진 / 채윤정
 천순자 / 최경덕 / 최경희 / 최미니 / 최병주 / 최상돈 / 최상준 / 최상천 / 최상정 / 최수연 / 최순자 / 최영화 / 최정순 / 최종보 / 최종욱 / 최진혁 / 최홍근 / 최희윤
 최희자 / 추자희 / 추황보 / 탁승재 / 하중수 / 하혜영 / 한갑동 / 한경진 / 한경화 / 한상욱 / 한성우 / 한승이 / 한승진 / 한원섭 / 한재호 / 한진이 / 함동수 / 허균
 허문희 / 허수정 / 현명선 / 호정화 / 홍근선 / 홍금숙 / 홍성길 / 홍유선 / 홍재광 / 홍지만 / 홍창형 / 홍창호 / 홍형숙 / 황경주 / 황교순 / 황원선 / 황은경 / 황은주
 황재철 / 황진순 / 황진연 / 황창호 / 황준비 / 황준석

(재)서울의과학연구소 / (주)동양특수금속 / (주)디지털헤럴드 / (주)랜버드테크놀로지 / (주)싸인텔레콤 / (주)이지로보틱스 / J2(제이투) / KT&G 상상펀드기
 금융영위원회 / 가치있는밥상 / 건축학과 학생일동 /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 계몽춘천달갈비 / 내가짚한달 / 뉴플러스 정보통신(주) / 다래 / 다빈치케이
 (주)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도병원약국 / 돈황갈비 / 렉스젠(주) / 마포소문난족발순대국 / 맘모스고기부페 아주대점 / 명동칼국수 사브사브 / 무교동일품
 낙지 / 미스터쉐프 / 불문과 83학번 동기 / 서울광학산업(주) / 소아청소년과학교실 / 솔뚜껍삼겹살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신생아집중치료실 / 쌍용레미콘
 (주) / 이정희 / 아주스크린 / 아주의료행정연구회 / 영동상사 / 외상집중치료실 / 유니온플라워 /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 의료원 13층동병동 / 의료
 원 13층서병동 / 의료원 7층동병동 / 의료원 7층서병동 / 의료원 가정의학과교실 / 의료원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 의료원 방사선종양학교실 / 의료원 분만
 실 / 의료원 소화기내과학교실 / 의료원 신경외과학교실 / 의료원 알레르기내과학교실 / 의료원 약제팀 / 의료원 영상의학교실 /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실 / 의
 료원 직업환경의학교실 / 의료원 해부학교실 / 의료원 호흡기내과학교실 / 제일피개백반 / 조인셋(주) / 중소기업은행 / 춘하추동 / 한국그루 / 한우람 명품관
 (주) / 해성엔지니어링(주) / 허수아비 / 현경 / 화학과 동문회 / 우덕재단 / 송화재단 / 충청남도 서천소방서 /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 봉은재단 / 삼성복지재단

1-1-1 캠페인 기부자 (2013.10 ~ 2013.12)

갈원모 / 감동근 / 김정규 / 강경원 / 강경택 / 강경호 / 강기룡 / 강기현 / 강기훈 / 강나래 / 강동구 / 강두경 / 강명구 / 강명덕 / 강명희 / 강민구 / 김민철 / 강병돈
 강병욱 / 강병혁 / 강복선 / 강석배 / 강석환 / 강성식 / 강성윤 / 강승규 / 강승규 / 강신구 / 강신웅 / 강신호 / 강신희 / 강영모 / 강영화 / 강원규 / 강윤환 / 강은철
 강인희 / 강중성 / 강중우 / 강준성 / 강중수 / 강진모 / 강창진 / 강충권 / 강태양 / 강태영 / 강태현 / 강태호 / 강하중 / 강한현 / 강현 / 강현우 / 강현주 / 강형호
 강호식 / 강호출 / 강훈 / 강희석 / 강희진 / 경정현 / 경태영 / 경명원 / 고강현 / 고건웅 / 고광성 / 고기황 / 고대권 / 고동식 / 고동현 / 고명식 / 고민진 / 고병각
 고병수 / 고상현 / 고성민 / 고순재 / 고양순 / 고훈 / 고은화 / 고인용 / 고재만 / 고재용 / 고정민 / 고제상 / 고종섭 / 공경순 / 공만식 / 공영주 / 공훈 / 곽명숙
 곽범서 / 곽병철 / 곽선훈 / 곽옥경 / 곽정순 / 곽정신 / 곽정화 / 곽필준 / 구병춘 / 구본실 / 구본춘 / 구유희 / 구지영 / 구지현 / 구형자 / 구혜진 / 구효숙 / 국영호
 권건보 / 권경섭 / 권광우 / 권기중 / 권기형 / 권대진 / 권범윤 / 권성환 / 권세영 / 권순모 / 권순안 / 권순자 / 권순정 / 권영민 / 권오식 / 권오웅 / 권오일 / 권오중
 권오필 / 권오희 / 권용금 / 권용일 / 권우식 / 권우택 / 권윤하 / 권이수 / 권익주 / 권익진 / 권인애 / 권재일 / 권재현 / 권정의 / 권종희 / 권주빈 / 권주연 / 권준희
 권춘련 / 권태인 / 권혁동 / 권혁면 / 권혁신 / 권혁용 / 권혁중 / 권혜연 / 금동순 / 기은정 / 길경수 / 길기남 / 길애숙 / 김기영 / 김가희 / 김강형 / 김경규 / 김경래
 김경수 / 김경숙 / 김경현 / 김경혜 / 김경희 / 김경희 / 김계선 / 김계진 / 김광일 / 김광자 / 김구용 / 김국수 / 김국희 / 김권기 / 김규남 / 김규봉 / 김규서 / 김규진
 김규태 / 김근 / 김근배 / 김근우 / 김근태 / 김근표 / 김기문 / 김기범 / 김기복 / 김기섭 / 김기용 / 김기준 / 김기창 / 김기철 / 김기태 / 김기현 / 김기형
 김기호 / 김기환 / 김길중 / 김길중 / 김나윤 / 김남기 / 김남길 / 김남욱 / 김남진 / 김남포 / 김다은 / 김대용 / 김대우 / 김대하 / 김대현 / 김대홍 / 김대희 / 김덕영
 김도선 / 김도영 / 김도원 / 김동규 / 김동기 / 김동백 / 김동서 / 김동수 / 김동영 / 김동우 / 김동원 / 김동욱 / 김동익 / 김동일 / 김대현 / 김대홍 / 김대희 / 김덕영
 김두호 / 김병덕 / 김병범 / 김병수 / 김병숙 / 김병현 / 김명현 / 김명호 / 김모은 / 김무림 / 김문관 / 김문석 / 김미숙 / 김미옥 / 김미자 / 김미정 / 김민구 / 김민선
 김민성 / 김민영 / 김민용 / 김민우 / 김민정 / 김민주 / 김범수 / 김병곤 / 김병기 / 김병동 / 김병섭 / 김병수 / 김병영 / 김병욱 / 김병주 / 김병준 / 김병진 / 김보경
 김봉렬 / 김봉식 / 김봉준 / 김봉춘 / 김삼영 / 김상권 / 김상돈 / 김상동 / 김상룡 / 김상만 / 김상선 / 김상섭 / 김상열 / 김상영 / 김상우 / 김상태 / 김상훈 / 김서영
 김석원 / 김석태 / 김석훈 / 김선경 / 김선관 / 김선규 / 김선목 / 김선자 / 김선재 / 김선태 / 김성기 / 김성락 / 김성란 / 김성룡 / 김성만 / 김성수 / 김성숙 / 김성실
 김성우 / 김성원 / 김성조 / 김성중 / 김성현 / 김성희 / 김세득 / 김세영 / 김세은 / 김세철 / 김승 / 김승암 / 김승운 / 김수기 / 김수산 / 김수영 / 김수용 / 김수지
 김수진 / 김수철 / 김수현 / 김숙희 / 김순복 / 김순태 / 김슬찬 / 김승권 / 김승규 / 김승만 / 김승애 / 김승우 / 김승욱 / 김승주 / 김승진 / 김승희 / 김시범 / 김시완
 김시원 / 김시천 / 김신욱 / 김아름 / 김애숙 / 김애신 / 김아주 / 김양현 / 김연석 / 김연수 / 김연정 / 김연철 / 김연화 / 김영국 / 김영기 / 김영길 / 김영무 / 김영범
 김영빈 / 김영서 / 김영석 / 김영선 / 김영수 / 김영숙 / 김영일 / 김영주 / 김영중 / 김영진 / 김영찬 / 김영천 / 김영화 / 김영환 / 김영희 / 김예영 / 김오남 / 김옥규
 김옥진 / 김옥현 / 김오용 / 김용각 / 김용갑 / 김용걸 / 김용경 / 김용구 / 김용국 / 김용근 / 김용기 / 김용덕 / 김용석 / 김용성 / 김용수 / 김용운 / 김용태 / 김용환
 김우원 / 김우진 / 김욱중 / 김웅기 / 김웅일 / 김원경 / 김원식 / 김원양 / 김원우 / 김원규 / 김유권 / 김유복 / 김유신 / 김윤기 / 김윤정 / 김윤태 / 김유태 / 김은규
 김은석 / 김은숙 / 김은실 / 김은영 / 김은정 / 김은진 / 김은호 / 김은희 / 김이영 / 김익현 / 김익환 / 김인규 / 김인수 / 김인애 / 김일수 / 김자훈 / 김재근 / 김재문
 김재용 / 김재은 / 김재정 / 김재학 / 김재혁 / 김재현 / 김재호 / 김재홍 / 김재환 / 김전금 / 김점분 / 김정구 / 김정권 / 김정남 / 김정두 / 김정목 / 김정수 / 김정숙
 김정자 / 김정은 / 김정호 / 김정환 / 김정호 / 김제경 / 김제성 / 김중건 / 김중구 / 김중국 / 김중규 / 김중길 / 김중남 / 김중문 / 김중범 / 김중산 / 김중선 / 김중수
 김중숙 / 김중오 / 김중완 / 김중원 / 김중윤 / 김중준 / 김중철 / 김중태 / 김중현 / 김주래 / 김주봉 / 김주석 / 김주용 / 김주태 / 김주혁 / 김주현 / 김주환 / 김준상
 김준식 / 김준영 / 김준용 / 김준환 / 김준희 / 김중구 / 김지관 / 김지수 / 김지양 / 김지영 / 김지은 / 김지현 / 김지혜A / 김지호 / 김지훈 / 김지홍 / 김진곤
 김진명 / 김진선 / 김진성 / 김진수 / 김진안 / 김진영 / 김진우 / 김진원 / 김진현 / 김진호 / 김찬규 / 김찬우 / 김찬일 / 김찬호 / 김창규 / 김창근 / 김창길 / 김창식
 김창욱 / 김창조 / 김창주 / 김창진 / 김창현 / 김창호 / 김창희 / 김창훈 / 김천호 / 김천훈 / 김철수 / 김철순 / 김철호 / 김춘계 / 김춘식 / 김춘재 / 김치구 / 김태경
 김태식 / 김태연 / 김태영 / 김태욱 / 김태윤 / 김태일 / 김태출 / 김태훈 / 김판수 / 김광환 / 김필기 / 김하나 / 김하슬린 / 김학구 / 김학철 / 김한규 / 김한복 / 김한성
 김한욱 / 김한중 / 김혁진 / 김현 / 김현기 / 김현덕 / 김현돈 / 김현섭 / 김현수 / 김현숙 / 김현식 / 김현실 / 김현욱 / 김현우 / 김현중 / 김현주 / 김현호 / 김현희
 김형규 / 김형근 / 김형선 / 김형수 / 김형식 / 김형우 / 김형준 / 김형택 / 김형호 / 김혜선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용 / 김호남 / 김호빈 / 김호석 / 김호섭 / 김홍규
 김홍석 / 김홍순 / 김희정 / 김효동 / 김효상 / 김휘용 / 김홍수 / 김홍식 / 김홍용 / 김희순 / 나귀연 / 나금옥 / 나기석 / 나다혁 / 나명순 / 니은우 / 나중호 / 나창용
 나창문 / 나창일 / 나태영 / 나혜란 / 나혜련 / 남경택 / 남광희 / 남궁규태 / 남궁균 / 남보현 / 남상능 / 남상신 / 남승우 / 남영실 / 남정호 / 남현모 / 남현우 / 노기열
 노봉길 / 노동현 / 노민수 / 노병희 / 노성완 / 노숙경 / 노영덕 / 노은숙 / 노재우 / 노정식 / 노천규 / 노학래 / 노현욱 / 노현정 / 노현규 / 노호균 / 노희정 / 도미진
 도성재 / 도정열 / 도학순 / 라인옥 / 류무자 / 류상현 / 류성 / 류우주 / 류원대 / 류재안 / 류종규 / 류지상 / 류지현 / 류창호 / 류홍천 / 마명섭 / 마재화 / 명재호
 목병균 / 목익수 / 무기명 / 문경식 / 문경임 / 문관수 / 문도준 / 문명식 / 문명예 / 문병철 / 문상진 / 문승재 / 문연숙 / 문영준 / 문원길 / 문은표 / 문재경 / 문정빈
 문정옥 / 문지원 / 문창규 / 문한영 / 문혜원 / 문호진 / 문화봉 / 민경도 / 민경은 / 민병갑 / 민병구 / 민병도 / 민병윤 / 민병현 / 민오경 / 민정기 / 민종식 / 민준기
 민준영 / 민지인 / 민철기 / 민태홍 / 민현식 / 박강서 / 박건수 / 박건용 / 박경란 / 박경수 / 박경준 / 박경현 / 박경호 / 박경희 / 박계선 / 박광배 / 박광준 / 박광훈
 박관수 / 박규찬 / 박근우 / 박기동 / 박기원 / 박기준 / 박기진 / 박기표 / 박기현 / 박기홍 / 박낙원 / 박노석 / 박대원 / 박동애 / 박동진 / 박만규 / 박만진 / 박맹수
 박민선 / 박명분 / 박명욱 / 박명희 / 박모수 / 박무돈 / 박문산 / 박문순 / 박미도 / 박미랑 / 박미미 / 박미숙 / 박미현 / 박미희 / 박민경 / 박민규 / 박범식 / 박병균
 박병남 / 박병서 / 박병우 / 박병윤 / 박병창 / 박병훈 / 박복순 / 박봉기 / 박상기 / 박상보 / 박상신 / 박상오 / 박상욱 / 박상철 / 박상희 / 박선혜 / 박선화 / 박성수
 박성순 / 박성우 / 박성욱 / 박성준 / 박성진 / 박성철 / 박성환 / 박소영 / 박소은 / 박수경 / 박수용 / 박수진 / 박수택 / 박수현 / 박순례 / 박순식 / 박순우 / 박순규
 박승모 / 박시운 / 박신명 / 박신혜 / 박인태 / 박인홍 / 박연욱 / 박연희 / 박영근 / 박영동 / 박영란 / 박영만 / 박영미 / 박영복 / 박영석 / 박영선 / 박영수 / 박영신
 박영원 / 박영주 / 박영준 / 박영철 / 박원순 / 박용배 / 박용석 / 박용채 / 박용환 / 박우경 / 박우하 / 박원희 / 박유성 / 박윤서 / 박은희 / 박인규 / 박인기 / 박인숙

1-1-1 캠페인 기부자 (2013.10 ~ 2013.12)

박일분 / 박일임 / 박장욱 / 박재경 / 박재관 / 박재범 / 박재연 / 박재홍 / 박정식 / 박정욱 / 박정운 / 박정웅 / 박정원 / 박정재 / 박정진 / 박정현 / 박정훈 / 박종경 / 박종극 / 박종기 / 박종무 / 박종민 / 박종석 / 박종선 / 박종식 / 박종원 / 박종윤 / 박종채 / 박종춘 / 박종호 / 박종희 / 박주연 / 박주완 / 박준수 / 박준인 / 박중선 / 박중수 / 박지원 / 박진 / 박진일 / 박진희 / 박찬욱 / 박찬웅 / 박찬호 / 박창동 / 박철 / 박철균 / 박철현 / 박철형 / 박총림 / 박태웅 / 박태원 / 박판구 / 박학범 / 박해심 / 박해자 / 박혁 / 박현숙 / 박현실 / 박현일 / 박형철 / 박홍웅 / 박환창 / 박효순 / 박효진 / 박후상 / 박희진 / 박희태 / 반영무 / 반정호 / 반철희 / 방경원 / 방병천 / 방성주 / 방재욱 / 방현천 / 배광주 / 배기한 / 배명환 / 배미애 / 배미현 / 배범준 / 배상수 / 배성준 / 배수환 / 배영환 / 배지원 / 배철우 / 배학원 / 배현근 / 백병원 / 백남태 / 백병하 / 백상우 / 백선희 / 백설경 / 백영호 / 백윤기 / 백은주 / 백인선 / 백일웅 / 백정인 / 백차현 / 범진환 / 변경수 / 변동진 / 변승환 / 변용석 / 변지민 / 변진욱 / 변철진 / 변태환 / 변현오 / 변희주 / 변희진 / 복미숙 / 봉금희 / 봉래중 / 부춘성 / 사혜영 / 서국동 / 서귀암 / 서기준 / 서동재 / 서명원 / 서문호 / 서병수 / 서보건 / 서봉석 / 서봉현 / 서성택 / 서수한 / 서순영 / 서영덕 / 서원희 / 서유나 / 서은정 / 서은지 / 서재홍 / 서재훈 / 서정남 / 서정남 / 서정덕 / 서정원 / 서정현 / 서창희 / 서현진 / 서형탁 / 서희덕 / 석광열 / 석희덕 / 선영욱 / 선우찬 / 선효덕 / 설광수 / 설용훈 / 성미옥 / 성선복 / 성익중 / 성인선 / 성점수 / 소귀섭 / 소민섭 / 소병천 / 소의명 / 소지은 / 손경아 / 손경은 / 손덕기 / 손동일 / 손동재 / 손두현 / 손미선 / 손보익 / 손석상 / 손순이 / 손순환 / 손응중 / 손재영 / 손정제 / 손정훈 / 손지영 / 손치배 / 손태식 / 손현숙 / 송경수 / 송경희 / 송근섭 / 송기상 / 송기정 / 송기찬 / 송명동 / 송명중 / 송미숙 / 송미영 / 송병성 / 송병원 / 송석희 / 송선욱 / 송성용 / 송수곤 / 송수훈 / 송소임 / 송승용 / 송영숙 / 송영우 / 송욱자 / 송원재 / 송영호 / 송원호 / 송윤희 / 송은주 / 송은지 / 송재경 / 송재규 / 송재철 / 송정미 / 송정석 / 송정원 / 송중례 / 송중식 / 송주은 / 송진호 / 송중숙 / 송지영 / 송현호 / 송혜영 / 송호영 / 송희상 / 송홍배 / 신가나 / 신경철 / 신동욱 / 신동일 / 신동주 / 신동철 / 신동혁 / 신동희 / 신두철 / 신만재 / 신명호 / 신미정 / 신병우 / 신상기 / 신상운 / 신상진 / 신성은 / 신성철 / 신순욱 / 신승수 / 신영철 / 신용강 / 신용덕 / 신우진 / 신욱 / 신윤섭 / 신윤철 / 신응식 / 신익수 / 신재봉 / 신재수 / 신재숙 / 신재윤 / 신정섭 / 신정수 / 신정인 / 신정진 / 신정철 / 신정호 / 신종대 / 신준하 / 신준한 / 신준호 / 신중현 / 신창호 / 신태창 / 신현국 / 신현남 / 신현주 / 신현지 / 신형섭 / 신호연 / 신호준 / 심관용 / 심동섭 / 심우성 / 심우영 / 심웅섭 / 심인석 / 심재국 / 심정철 / 심준기 / 심지현 / 심학철 / 안규세 / 안기홍 / 안남욱 / 안대근 / 안동현 / 안명섭 / 안미선 / 안병립 / 안병식 / 안병열 / 안병철 / 안상수 / 안선미 / 안선호 / 안성철 / 안성화 / 안승숙 / 안소일 / 안영선 / 안영찬 / 안영환 / 안예환 / 안은옥 / 안익훈 / 안재성 / 안재현 / 안재환 / 안재희 / 안정열 / 안정철 / 안정표 / 안정현 / 안준하 / 안창식 / 안창영 / 안창준 / 안철순 / 안치규 / 안치원 / 안태훈 / 안현남 / 안혜영 / 안호영 / 안희찬 / 양광모 / 양광하 / 양국현 / 양기천 / 양기태 / 양남미 / 양문모 / 양미령 / 양민수 / 양병용 / 양병호 / 양봉식 / 양성식 / 양승권 / 양승렬 / 양승석 / 양시영 / 양영재 / 양원석 / 양윤정 / 양익주 / 양인모 / 양인식 / 양재현 / 양정안 / 양찬규 / 양춘수 / 양대영 / 양한나 / 양한별 / 양한덕 / 양호진 / 양희창 / 양희문 / 양희성 / 양희정 / 양희찬 / 어경미 / 어미자 / 어승규 / 어윤하 / 엄경식 / 엄경이 / 엄기열 / 엄민희 / 엄봉학 / 엄애현 / 엄재득 / 엄정완 / 엄태문 / 여각동 / 여철현 / 연구봉 / 엄경훈 / 엄동일 / 엄병국 / 엄성현 / 엄우영 / 예홍진 / 오경윤 / 오귀석 / 오귀훈 / 오대지 / 오동근 / 오동욱 / 오란석 / 오명숙 / 오명순 / 오상경 / 오상탁 / 오설빈 / 오성원 / 오성호 / 오세창 / 오세철 / 오세태 / 오수기 / 오순아 / 오승한 / 오신규 / 오신봉 / 오영권 / 오영숙 / 오영태 / 오영택 / 오영호 / 오왕준 / 오용인 / 오은경 / 오은영 / 오인숙 / 오인환 / 오재영 / 오정락 / 오정애 / 오주섭 / 오주영 / 오준서 / 오지환 / 오진영 / 오창준 / 오창현 / 오대근 / 오택원 / 오현숙 / 오현우 / 오현정 / 오형택 / 오혜숙 / 오호영 / 옥정미 / 왕남원 / 왕영숙 / 왕진식 / 왕세중 / 왕은희 / 우경은 / 우동석 / 우병주 / 이상혁 / 우인석 / 우용재 / 우은경 / 우일영 / 우재영 / 우정석 / 우정필 / 우종재 / 우종근 / 우창완 / 우춘섭 / 우효정 / 원민호 / 원성화 / 원용석 / 원유정 / 원윤희 / 원주경 / 원지호 / 위규범 / 위정식 / 위훈환 / 유갑진 / 유경호 / 유경화 / 유경희 / 유권중 / 유기상 / 유덕기 / 유동문 / 유명호 / 유문숙 / 유미애 / 유병대 / 유상근 / 유상열 / 유상원 / 유상혁 / 유선영 / 유성렬 / 유성재 / 유승선 / 유승화 / 유시대 / 유연창 / 유영숙 / 유영애 / 유영해 / 유옥순 / 유용석 / 유용수 / 유용식 / 유인상 / 유재권 / 유재석 / 유재철 / 유재경 / 유중현 / 유진원 / 유찬재 / 유철형 / 유중상 / 유태규 / 유태근 / 유태현 / 유하임 / 유한석 / 유현준 / 유혜라 / 유호상 / 유희석 / 육현민 / 윤광석 / 윤기원 / 윤도원 / 윤명범 / 윤민경 / 윤민욱 / 윤상익 / 윤상중 / 윤상희 / 윤석열 / 윤석희 / 윤선희 / 윤성택 / 윤성희 / 윤수연 / 윤순장 / 윤승원 / 윤승현 / 윤연숙 / 윤영주 / 윤영화 / 윤용식 / 윤우일 / 윤은경 / 윤은주 / 윤익섭 / 윤인명 / 윤인성 / 윤인수 / 윤장희 / 윤재덕 / 윤재승 / 윤정용 / 윤중엽 / 윤종일 / 윤중찬 / 윤주용 / 윤준구 / 윤중근 / 윤진 / 윤진미 / 윤진수 / 윤진숙 / 윤찬용 / 윤춘기 / 윤치영 / 윤태영 / 윤필영 / 윤학근 / 윤현철 / 윤형진 / 윤혜경 / 윤혜정 / 윤희 / 은미희 / 은유진 / 이강구 / 이강기 / 이강준 / 이강현 / 이건주 / 이건화 / 이경복 / 이경석 / 이경섭 / 이경우 / 이경재 / 이경중 / 이경중 / 이경현 / 이경호 / 이경환 / 이계주 / 이광노 / 이광목 / 이광미 / 이광용 / 이광중 / 이광호 / 이광희 / 이교범 / 이국재 / 이군상 / 이규철 / 이규환 / 이근석 / 이금례 / 이금숙 / 이기근 / 이기명 / 이기복 / 이기선 / 이기섭 / 이기승 / 이기영 / 이기중 / 이기홍 / 이기훈 / 이다솜 / 이대범 / 이대현 / 이도섭 / 이동규 / 이동근 / 이동기 / 이동렬 / 이동성 / 이동렬 / 이동원 / 이동진 / 이동현 / 이도호 / 이만기 / 이만성 / 이명운 / 이명자 / 이명주 / 이명호 / 이문근 / 이문상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남 / 이미영 / 이미자 / 이민경 / 이민상 / 이민선 / 이민섭 / 이민우 / 이민호 / 이범식 / 이병규 / 이병근 / 이병기 / 이병대 / 이병선 / 이병엽 / 이병욱 / 이병조 / 이병호 / 이보미 / 이보영 / 이복실 / 이복훈 / 이복식 / 이부영 / 이분열 / 이삼근 / 이삼주 / 이상 / 이상국 / 이상권 / 이상규 / 이상미 / 이상민 / 이상성 / 이상순 / 이상신 / 이상아 / 이상열 / 이상엽 / 이상운 / 이상원 / 이상준 / 이상천 / 이상철 / 이상현 / 이상훈 / 이석원 / 이석현 / 이선미 / 이선이 / 이선형 / 이선후 / 이성근 / 이성숙 / 이성식 / 이성아 / 이성엽 / 이성우 / 이성운 / 이성윤 / 이성주 / 이성진 / 이성현 / 이성호 / 이성희 / 이세원 / 이소정 / 이송호 / 이수영 / 이수진 / 이수형 / 이숙향 / 이순아 / 이순영 / 이순태 / 이순택 / 이순화 / 이슬 / 이승구 / 이승근 / 이승우 / 이승제 / 이승준 / 이승현 / 이승희 / 이선형 / 이영호 / 이양희 / 이연강 / 이연주 / 이연희 / 이영 / 이영경 / 이영국 / 이영규 / 이영미 / 이영범 / 이영석 / 이영욱 / 이영일 / 이영철 / 이영학 / 이영현 / 이영호 / 이예리 / 이예진 / 이옥자 / 이왕형 / 이왕로 / 이왕욱 / 이왕수 / 이왕욱 / 이왕운 / 이우암 / 이우영 / 이운갑 / 이운호 / 이원량 / 이원엽 / 이원중 / 이원찬 / 이원진 / 이윤우 / 이윤정 / 이윤제 / 이윤중 / 이윤지 / 이윤희 / 이은경 / 이은규 / 이은성 / 이은영 / 이은주 / 이은형 / 이은호 / 이은희 / 이윤희 / 이윤희 / 이인규 / 이인수 / 이인순 / 이인풍 / 이인호 / 이일주 / 이일표 / 이자성 / 이장근 / 이재권 / 이재균 / 이재길 / 이재려 / 이재민 / 이재성 / 이재순 / 이재영 / 이재영 / 이재욱 / 이재용 / 이재의 / 이재천 / 이재평 / 이재현 / 이점용 / 이정돈 / 이정복 / 이정상 / 이정성 / 이정수 / 이정순 / 이정신 / 이정우 / 이정원 / 이정은 / 이정인

1-1-1 캠페인 기부자 (2013.10 ~ 2013.12)

이정일 / 이정재 / 이정준 / 이정철 / 이정태 / 이정표 / 이정현 / 이정호 / 이정환 / 이정훈 / 이종근 / 이종대 / 이종섭 / 이종연 / 이종오 / 이종용 / 이종욱 / 이종원 / 이종웅 / 이종찬 / 이종태 / 이종현 / 이종훈 / 이주미 / 이주성 / 이주완 / 이주호 / 이주환 / 이준명 / 이준섭 / 이준수 / 이준영 / 이준은 / 이준호 / 이종화 / 이지복 / 이지상 / 이지연 / 이지원 / 이지현 / 이지훈 / 이진경 / 이진구 / 이진국 / 이진석 / 이진선 / 이진아 / 이진영 / 이진우 / 이진주 / 이진호 / 이진희 / 이찬봉 / 이창수 / 이창우 / 이창준 / 이창환 / 이창훈 / 이채린 / 이채영 / 이채우 / 이철기 / 이충균 / 이충식 / 이충용 / 이치인 / 이태욱 / 이태원 / 이태웅 / 이태재 / 이태희 / 이택천 / 이택형 / 이평애 / 이평천 / 이하영 / 이한규 / 이한규 / 이한록 / 이한석 / 이한솔 / 이한식 / 이한영 / 이해승 / 이해준 / 이항숙 / 이항희 / 이혁준 / 이현규 / 이현명 / 이현상 / 이현실 / 이현욱 / 이현진 / 이현택 / 이형모 / 이형무 / 이형민 / 이형익 / 이형천 / 이혜경 / 이호근 / 이호영 / 이호중 / 이화수 / 이화숙 / 이화영 / 이호걸 / 이효순 / 이효식 / 이효철 / 이휘동 / 이흥수 / 이희강 / 이희연 / 인정근 / 임경빈 / 임규만 / 임근찬 / 임기영 / 임동규 / 임동수 / 임동하 / 임명재 / 임명훈 / 임모환 / 임문채 / 임민호 / 임병국 / 임병수 / 임병엽 / 임봉길 / 임석배 / 임석주 / 임석철 / 임선욱 / 임성주 / 임양미 / 임영무 / 임영준 / 임용백 / 임유빈 / 임윤희 / 임지영 / 임진규 / 임진수 / 임재건 / 임창규 / 임재숙 / 임재영 / 임재원 / 임준기 / 임춘섭 / 임춘성 / 임춘식 / 임태규 / 임현 / 임호순 / 임홍식 / 임화선 / 임홍순 / 장광열 / 장기순 / 장도영 / 장병정 / 장봉희 / 장상만 / 장서린 / 장석일 / 장석진 / 장선규 / 장세덕 / 장세찬 / 장소영 / 장수경 / 장영미 / 장영수 / 장용석 / 장용창 / 장용호 / 장우진 / 장은진 / 장은혜 / 장정애 / 장준교 / 장준복 / 장준석 / 장준순 / 장지선 / 장지연 / 장지숙 / 장진엽 / 장진영 / 장철웅 / 장혜영 / 장호 / 장홍임 / 장희철 / 전경근 / 전경남 / 전근열 / 전도수 / 전두수 / 전명자 / 전병도 / 전병수 / 전상욱 / 전성일 / 전성표 / 전성환 / 전수정 / 전승민 / 전승준 / 전승진 / 전영목 / 전용현 / 전용호 / 전우석 / 전재현 / 전정욱 / 전정조 / 전지영 / 전진수 / 전창규 / 전현수 / 전현숙 / 전형우 / 정경훈 / 정경희 / 정구영 / 정구창 / 정규범 / 정규순 / 정규하 / 정규희 / 정기숙 / 정기정 / 정기현 / 정기환 / 정기훈 / 정남우 / 정다연 / 정대중 / 정동민 / 정동열 / 정두연 / 정명숙 / 정명신 / 정문기 / 정미숙 / 정민주 / 정민호 / 정병근 / 정복길 / 정봉석 / 정상호 / 정서진 / 정석모 / 정선교 / 정선엽 / 정성영 / 정성운 / 정성윤 / 정성중 / 정성환 / 정성희 / 정세훈 / 정수빈 / 정순영 / 정순임 / 정승화 / 정애경 / 정양민 / 정양원 / 정양호 / 정연광 / 정연영 / 정연재 / 정연호 / 정연훈 / 정영욱 / 정영채 / 정완식 / 정왕진 / 정요엘 / 정윤희 / 정우진 / 정운규 / 정우찬 / 정운석 / 정익대 / 정익원 / 정이숙 / 정인권 / 정인수 / 정인하 / 정일규 / 정일한 / 정재기 / 정재영 / 정재원 / 정재래 / 정정문 / 정제환 / 정중권 / 정주호 / 정준모 / 정지순 / 정지윤 / 정진 / 정창경 / 정채민 / 정청용 / 정대선 / 정대수 / 정대웅 / 정대화 / 정한웅 / 정해근 / 정해욱 / 정해준 / 정현숙 / 정현용 / 정현우 / 정혜림 / 정혜원 / 정혜인 / 정혜지 / 정호연 / 정호운 / 정홍규 / 정희교 / 정희진 / 조강래 / 조걸훈 / 조경숙 / 조경태 / 조광국 / 조광순 / 조규열 / 조규태 / 조기홍 / 조길원 / 조남욱 / 조동식 / 조두진 / 조명규 / 조명순 / 조무창 / 조문준 / 조병성 / 조병태 / 조병환 / 조병원 / 조성만 / 조성철 / 조성태 / 조수진 / 조아라 / 조양숙 / 조연제 / 조영권 / 조영록 / 조영상 / 조영석 / 조영호 / 조원익 / 조완호 / 조용근 / 조용백 / 조우리 / 조우현 / 조원규 / 조원주 / 조윤상 / 조윤진 / 조은경 / 조은숙 / 조은주 / 조익수 / 조익환 / 조인성 / 조재용 / 조재형 / 조재환 / 조정숙 / 조정은 / 조정한 / 조종순 / 조종용 / 조중열 / 조중환 / 조지만 / 조진선 / 조총희 / 조태성 / 조하연 / 조한덕 / 조한식 / 조한정 / 조해성 / 조해정 / 조현수 / 조현욱 / 조현우 / 조현주 / 조형규 / 조혜성 / 조혜정 / 조환 / 조환명 / 조희형 / 주광진 / 주기영 / 주동준 / 주민규 / 주명천 / 주일로 / 주창우 / 주창원 / 주필상 / 지승규 / 지승렬 / 지영교 / 지영선 / 지준경 / 지찬원 / 지춘수 / 진경년 / 진광선 / 진누리 / 진명주 / 진명철 / 진성호 / 진주현 / 진현우 / 진혜지 / 차미희 / 차상훈 / 차선희 / 차영선 / 차영주 / 차은별 / 차춘근 / 차환윤 / 채규창 / 채석환 / 채영호 / 채일천 / 천명길 / 천순자 / 천승락 / 최경해 / 최경희 / 최관수 / 최광식 / 최규선 / 최근경 / 최근배 / 최근실 / 최근호 / 최금숙 / 최기락 / 최기원 / 최기혁 / 최길수 / 최도선 / 최만조 / 최만중 / 최명규 / 최명지 / 최모석 / 최문규 / 최문호 / 최미영 / 최민국 / 최병국 / 최병욱 / 최상돈 / 최상범 / 최상한 / 최선정 / 최성남 / 최성달 / 최수도 / 최수연 / 최수영 / 최순식 / 최순자 / 최승권 / 최승순 / 최승윤 / 최승현 / 최시현 / 최신영 / 최연식 / 최영국 / 최영남 / 최영두 / 최영락 / 최영수 / 최영실 / 최영우 / 최영재 / 최영호 / 최옥분 / 최용준 / 최용호 / 최우용 / 최원덕 / 최원석 / 최원신 / 최원진 / 최유미 / 최윤 / 최윤영 / 최윤호 / 최윤희 / 최용현 / 최은우 / 최윤선 / 최익규 / 최익선 / 최인자 / 최인태 / 최재근 / 최재승 / 최재은 / 최재필 / 최재혁 / 최재현 / 최재효 / 최정민 / 최정영 / 최정주 / 최중우 / 최중욱 / 최준영 / 최중성 / 최중영 / 최중원 / 최중호 / 최진규 / 최진규 / 최진안 / 최진형 / 최창식 / 최철원 / 최춘석 / 최충현 / 최태영 / 최하영 / 최학철 / 최현아 / 최형경 / 최홍근 / 최희찬 / 최희선 / 추동욱 / 추병윤 / 추삼민 / 추호석 / 탁현배 / 태상원 / 편재필 / 편중훈 / 표준상 / 하성욱 / 하영화 / 하원국 / 하윤수 / 하종진 / 하치환 / 한경화 / 한경희 / 한관희 / 한광남 / 한근희 / 한규진 / 한기상 / 한기자 / 한기홍 / 한다예 / 한민규 / 한봉희 / 한상관 / 한상욱 / 한성준 / 한성철 / 한석근 / 한석봉 / 한성준 / 한성희 / 한승엽 / 한승호 / 한영민 / 한영석 / 한영엽 / 한영희 / 한운수 / 한윤희 / 한은규 / 한재광 / 한정규 / 한정숙 / 한정연 / 한종인 / 한중희 / 한진희 / 한창근 / 한태규 / 한혁진 / 한형욱 / 한호 / 한화영 / 한호식 / 한희영 / 함건주 / 함경숙 / 함정화 / 함형규 / 함형미 / 함형이 / 함효준 / 하근우 / 허가영 / 허려화 / 허문희 / 허미성 / 허석수 / 허성욱 / 허성철 / 허인영 / 허준 / 허택만 / 허호우 / 한남주 / 현서광 / 현석우 / 현수 / 현연식 / 현정은 / 현희숙 / 호정화 / 홍권선 / 홍권희 / 홍근선 / 홍기택 / 홍다빈 / 홍대표 / 홍만표 / 홍민철 / 홍범준 / 홍보영 / 홍봉숙 / 홍석만 / 홍석진 / 홍석표 / 홍성기 / 홍성수 / 홍성호 / 홍세경 / 홍수정 / 홍순갑 / 홍순희 / 홍승범 / 홍영수 / 홍영숙 / 홍우리 / 홍원기 / 홍인철 / 홍재영 / 홍중원 / 홍종필 / 홍종혁 / 홍지아 / 홍진기 / 홍진선 / 홍혜린 / 황경애 / 황교민 / 황교숙 / 황금철 / 황기순 / 황덕모 / 황동선 / 황두성 / 황란영 / 황명수 / 황미라 / 황민숙 / 황민하 / 황병철 / 황보찬 / 황석영 / 황선관 / 황선영 / 황성규 / 황성욱 / 황성진 / 황수연 / 황순석 / 황순연 / 황인일 / 황우식 / 황웅상 / 황원복 / 황원선 / 황의경 / 황의정 / 황인국 / 황정민 / 황주현 / 황지환 / 황진연 / 황진욱 / 황찬원 / 황충국 / 황태선 / 황혜진

(주)경봉 / (주)성호스텐 / (주)세인 / (주)에이피피 / (주)이포넷 / 다빈치케이(주) / 대양코퍼레이션(주) / 미래공조(주) / 보광토탈이엔지(주) / 비티에스경영컨설팅 / 세이프건설(주) / 아주투어 / 앙보이스 / 에스피티 / 영통 수정형외과 의원 / 유티정보(주) / 윤석민 법률사무소 / 주식회사 세인코스 / 주식회사 엔에프씨 / (주)임파크 / (주)한국푸앤코

2014학년도 입학 전형 마무리에 즈음하여



한 호_입학처장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물론 충원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하려면 2월 말은 되어야 하지만 정시 원서접수가 끝난 뒤부터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학처장을 맡아 4월부터 전국을 돌며 고교 교사와 학부모, 수험생들을 만나고 수시와 정시를 치르며 숨가쁘게 달려온 10개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한 덕분인지 별탈 없이 올해 전형을 마칠 수 있었다.

올해는 수능시험 체제가 A, B형으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있었고, 아주대학교 입학 전형 자체에도 변동이 있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전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전환했고, 과학중점교 학생 대상 전형을 따로 만들었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며 변화가 많았기에 입시 결과에 대한 불안도 컸다. 지난해 수시 접수 6회 제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주대학교가 선전했었다는 점도 올해 입시를 시작하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불안은 아주대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대학들도 수험생 수 감소와 수능 유형별 분류로 입학경쟁률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특기자 외국어 분야, 일반전형1(논술)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상승했고, 무엇보다 실질경쟁률의 상승이 고무적이었다. 지난해에는 논술 응시자 비율이 45%, 응시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45%가량 되어 처음에 36.9대1이었던 경쟁률이 실제로는 7.6대1로 푹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 논술 응시율은 63.8%로 상승하였고, 응시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도 41.2%로 지난해와 비슷해 실질경쟁률은 15.6

대1로 오히려 상승했다. A, B형으로 나뉘어 치러진 수능 탓에 대부분 수험생의 수능 등급이 하락했고,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셈이다.

이렇게 기대와 불안 속에 수시전형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작된 정시전형 역시 쉽지는 않았다. 원서접수 첫날부터 접수 마감일 오전까지도 대부분의 학과가 1대1 정도의 경쟁률에 머물러 마음을 졸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감일 오후에 들어서면서 지원자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 최종 경쟁률은 2013학년도를 앞질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3학년도에 좋은 결과를 냈던 나군 수탐(수학B+탐구) 전형을 2014학년도부터는 자연계 전 학과에 확대했는데, 비슷한 전형을 경쟁 대학들이 신설하면서 평균경쟁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쟁률이나 등록률 같은 수치로 입시를 성공이나 실패나 말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올라가면 전형료 수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시의 특성상 등록자 중 충원 합격자 비율이 최초 합격자 비율보다 높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신입생들의 성적도 함께 올라간다. 그렇다보니 대학들이 경쟁률에 신경을 쓰면서 기대와 불안 속에 입시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학처장을 하는 한 이런 기대 반 걱정 반의 상태를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 그래도 학생들을 향한 기대와 보람이 힘들고 고된 입학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듯하다. 1년 내내 고심하며 정성을 다해 뽑은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입생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정말 궁금하다.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1-1-1 캠페인

- 사랑스런 후배의 멘토가 되어 가슴 속에 자리합니다.
1-1-1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은 철저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돌아갑니다. 심시일반 모인 정성은 매학기 '1-1-1 장학금'으로 후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 미래의 사랑스런 아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 선·후배간의 따뜻한 교류가 희망찬 '아주공동체'를 열어줍니다.



- ☎ 전 화 : 031-219-2107~9, 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 🖱 인터넷 : 대학발전본부 홈페이지 (<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 ✉ 이메일 :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 의사 표시
- 📠 팩 스 : 031-219-1623으로 약정서 송부
- 👤 CMS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참여(세부사항 전화문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든 큰 사랑 1-1-1 캠페인으로 후배사랑이 가까워집니다. 기부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